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이 선 화

2016년 8월

석사학위논문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이 선 화

2016년 8월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지도교수 김 한 일

이 선 화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이선화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梁鐵健

위 원

김명하

위 원

김한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6년 8월

**A study on revitalization strategies of
cultural contents through storytelling
focused on life history of Jeju Haenyeo**

Lee, Sun-hw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Storytelling).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Yang, Jigwon
Kim, Maeng-Ha
Kim, Hanil

Dat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i
Abstract	ix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생애사 연구	3
1) 생애사 연구의 개념	3
2) 생애사 연구의 의의	5
3) 제주해녀의 생애사 연구	6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7
III.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사례분석	10
1.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	10
1) 제주해녀의 역사와 삶	10
2) 제주해녀문화 : 생(生)과 사(死)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15
3) 제주해녀문화 : 공동작업과 굿, 노동요	16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사례	18
1)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	19
2) 무대 공연예술	21
3) 축제	22
4) 방송	24

5) 영화	24
6) 음악	26
(1) 해녀노래	26
(2) 그 외 음악적 시도	29
7) 인프라사업	29
(1) 해녀박물관	29
(2) 한수풀 해녀학교	32
(3) 법환 해녀학교	33
(4) 성산포의 해녀물길공연	35
(5) 혼인지 - 해녀의 집	35
8) 만화·애니메이션	36
9) 캐릭터	36
10) 출판	37
3. 일본의 아마	43
1) 아마 서밋트(あま Summit)	47
2) 바다박물관	47
3) 오오사즈 해녀문화자료관	48
4) 아마 마쯔리 - 시라하마 해녀축제	48
5) 아마짱	49
4. 제주해녀의 생태적·정서적 삶과 공동체를 살린 문화콘텐츠	52
1)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 - 제주해녀 밥상	56
2) 여성의 정서적 공동체 - 여성주의적 거버넌스 구축	58
IV.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61
1. 제주해녀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도 기반 강화	62
2. 제주해녀 문화콘텐츠 전담부서와 전문성 강화	63
3.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64
4. 제주해녀의 자력화와 네트워크 구축	66

V. 결론 및 제언	67
1. 결론	67
2. 제언	69
 참고문헌	 72

표 목 차

<표 1> 연령별 해녀현황	13
<표 2> 연도별 해녀현황	13
<표 3>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사례	39

그 립 목 차

<그림 1>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의 비교	46
------------------------------	----

[국문초록]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이 선 화

제주도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김 한 일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제주여성의 강인한 삶을 대변하는 제주해녀의 삶과 가치를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해녀는 제주 해양경제를 이끌어 온 어업군으로서의 위상으로만 조명되어왔고 행정 역시 해녀들의 물질작업에 대한 지원이나 잠수병 치료 등에 대한 접근으로 제주해녀의 문제를 인식해왔었기 때문이다.

제주해녀가 국가를 대표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취득을 앞두고 과연 제주해녀의 어떤 부분이 미래세대에게 전파해야 되는 지속가능한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이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마련

하여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제주해녀만이 지닌 특유의 문화 속성들을 파악하고 제주의 고유한 문화원형들 가운데서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해녀 문화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보존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녀의 고유한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브랜드화를 통한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주해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생애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주해녀의 원형콘텐츠를 활용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사례를 함께 조사, 정리하였다.

특히 생애사 연구는 제주해녀에 관한 각종의 기록과 연구자료, 직접 대면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녀들의 제주해녀로서의 삶과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사례분석은 무대공연, 축제, 방송, 영화, 음악, 인프라사업,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의 다양한 활용사례 연구와 더불어 일본 아마의 사례분석도 병행했다. 일본의 아마가 제주해녀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이 늦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등재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아마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콘텐츠 활용사례를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해녀문화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보존을 위한 문화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첫째, 제주해녀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도 기반 강화
- 둘째, 제주해녀 문화콘텐츠 전담부서와 전문성 강화
- 셋째, 제주해녀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 넷째, 제주해녀의 자력화와 네트워크 구축

올해 말이면 제주해녀는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는 거쳐 가야 할 당연한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는 유네스코 등재를 넘어 제주사람에 대한 가치, 도민의 자존감과 국가브랜드로서 세계에 한국여성문화의 대표성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는 의미 있는 일이다.

유네스코 등재를 넘어 제주도와 한국을 넘어 세계로 제주해녀문화가 공감대를 확산하려면 세계인의 언어라고 하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인만이 아닌 국내외의 문화예술가들이 제주해녀를 소재로 작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DB자료 구축과 제주해녀 아카이브 작업에도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거친 자연을 이겨내며 뜨거운 삶을 살아낸 위대한 제주 어머니들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제주해녀,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생애사, 유네스코, 지속가능성

[Abstract]

A study on revitalization strategies of
cultural contents through storytelling
focused on life history of Jeju Haenyeo

Lee, Sun-hwa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il

In registering Jeju Haenyeo to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oices are urging that we have to see Jeju Haenyeo's life and value that represents Jeju women's strong spirit from the cultural point of view. Jeju Haenyeo has only been seen as a fishing worker who has led Jeju maritime economy and their issue was dealt only to support their work or for decompression sickness cure.

As Jeju Haenyeo is about to acquire the global brand,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tud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value of Jeju Haenyeo and how to prepare cultural contents as a global brand to pass down to the future generation.

This study was aimed at suggesting a direction to make Jeju Haenyeo a global brand to represent Korea as a cultural content making the best use of storytelling abou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fter examining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Haenyeo. Ultimately, the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storytelling for sustainability and preservation of Haenyeo and communities and suggesting a plan to activate the global cultural contents to attract the world's attention.

For the purpose, the study sought for the possi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through branding of Jeju Haenyeo as a cultural content using the unique cultural feature of Jeju Haenyeo. To study a plan to activate the cultural content with storytelling of Jeju Haenyeo, the study collected and arranged examples of OSMU(One Source Multi Use) us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life history and proto contents of Jeju Haenyeo.

In studying life history, the study could understand the life of Jeju Haenyeo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various materials, research data and direct interviews. Using the data, the study also studied how to use the data in storytelling for Jeju Haenyeo'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be help of their life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Moreover, the study conducted an example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of Jeju Haenyeo along with Japanese Ama as well as various applications in performance, festivals, broadcasting, movies, music, infra business, cartoon and animation, characters, publishing, etc. Although the Japanese Ama began preparation for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ter than Jeju Haenyeo, the study analyzed what Japan was doing for the registration and various contents applications to promote Ama all around the world.

As the result, the study suggested a plan to activate the cultural contents for sustainability and preservation of communities and Haenyeo culture as in the following.

First, enhancing legal and political foundation in relation with Jeju Haenyeo cultural contents

Second, enhancing departments in charge of Jeju Haenyeo cultural contents and their professionalism

Third, practical supports for sustainability of Jeju Haenyeo

Forth, establishing network and Jeju Haenyeo's life in their own strength

We are expecting that Jeju Haenyeo would be registered to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end of this year. However, the registration shall not be the ultimate goal. It is one of the ways we have to go through. Globalization of Jeju Haenyeo culture is meaningful not just as UNESCO Heritage but as the national brand and self-esteem of Jeju people as well as their values to promote Korean female culture around the world.

For Jeju Haenyeo culture to expand its influence on the world beyond UNESCO registration, there shall be more active policies and supports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e', so-called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re shall be opportunities for artists inside and outside Korea to work on Jeju Haenyeo and establishment of DB data to speed up the Jeju Haenyeo archive work. This will be the way to preserve the value of the admirable Jeju mothers who have been fighting against nature with enthusiasm and passion.

Key words : Jeju Haenyeo, storytelling, cultural contents, life history, UNESCO, sustainability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¹⁾를 앞두고 제주여성의 강인한 삶을 대변하는 제주해녀의 삶과 가치를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해녀는 제주 해양경제를 이끌어 온 어업군으로서의 위상으로만 조명되어왔고 행정 역시 해녀들의 물질작업에 대한 지원이나 잠수병 치료 등에 대한 접근으로 제주해녀의 문제를 인식해왔었다. 하지만 제주해녀가 국가를 대표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취득을 앞두고 새로운 인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과연 제주해녀의 어떤 부분이 미래세대에게 전파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이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마련하여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해녀문화의 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의외로 제주해녀의 문화 작품물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물로 생산되기 위한 제주해녀의 문화적 DB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해녀의 삶과 가치를 문화 콘텐츠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주해녀들의 생생한 삶을 담아내는 생애사 작업이 필요하고, 이 생애사의 콘텐츠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하여 제주해녀 문화콘텐츠의 활성화를 강조하려

1)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17 October 2003)이 제시한 무형문화유산의 다섯 가지 범위 중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에 해당되며 특히 이 가운데 ‘전통적 생태 지식’(traditional ecological wisdom), ‘토착 지식’, ‘지역 동식물에 대한 지식’에 부합한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점차 사라져 가는 제주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13년 12월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등재신청 한국 대표종목으로 선정하고 이후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난해 등재를 목표로 2014년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유네스코가 국가 간 경쟁 과열 등의 이유로 연도별 등재 종목을 50건으로 제한하며 긴급보호 목록 신청국가와 공동등재 국가 등에 순서를 양보, 올해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28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제11차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 홈페이지,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http://ichcap.org/kor/html/02_04_06_01.php>, 검색일 : 2016.6.1.

한다.

문화콘텐츠의 기본은 정보가 아닌 감동이기 때문에 제주해녀들의 가장 리얼한 생애를 소재로 삼아야 한다. 척박한 제주바다에서 여성의 몸으로 물질작업을 하였던 제주해녀가 여성어업경제인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생태친화적 삶을 살아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제주해녀의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주요 조건으로써 가공된 상상력의 이야기가 아닌 해녀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 속에서 더욱 더 생생한 감동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성의 몸으로 물질작업을 하고 실질적 가장으로서 살아온 제주해녀들의 이야기가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자연생태와 함께한 문화적 가치로서 조명되어야 감동의 울림이 더 클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주해녀에 관한 여러 학문 영역에서의 연구들은 이미 민족학적인 연구는 물론 인문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의학, 관광학 분야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주해녀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연구와 제주해녀의 생애사를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의 생애사 연구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이론적 배경 제3장에서는 제주해녀 생애사 사례를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제주해녀의 생태적·정서적 삶과 공동체를 살린 문화콘텐츠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을 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의 결론으로써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결과와 더불어 연구가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애사 연구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살아온 세월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로 기록하는 작업이다. 생애사는 그 개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그의 독특한 삶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애사 작업을 통해 그동안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 덜 다루어졌던, 여성을 비롯한 사회 내 소수집단의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생애사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생애사 연구의 역사, 의의, 특성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제주해녀의 혼과 바다에 대한 사랑, 삶의 역사와 생애 전체를 오롯이 담아 제주해녀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 생애사 연구²⁾를 원용하고자 한다.

1) 생애사 연구의 개념

생애사 연구의 기원은 1920년대 및 1930년대 시카고학파의 사회학적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카고학파의 사회학적 전통은 사회문제의 본질과 이민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애사 연구를 활용하였다. 시카고학파가 주도한 도시인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생애사 연구 방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³⁾.

2) 최근 여성학, 인류학 등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생애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문헌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자료들은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지배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쉬운 반면, 생애사 연구는 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글, 비망록과 같은 문서기록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수민족처럼 공식적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비특권 계층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 윤택림 (2004), 문호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5쪽.

3) 이때, 진행된 연구들에 Thrasher(1928)의 갱(The Gang), Zorbaugh(1929)의 황금해안과 빈민가(The Gold Coast and the Slum), Wirth(1928)의 게토(The Ghetto) 등이 있다. 시카고학파의 생애사 연구에 대한 관심은 Shaw(1930)의 잭 롤러(Jack Roller)와 Sutherland의 전문적 도둑(The Professional Thief)에서 절정에 달했다. 또한, Dollard(1949)는 생애사를 위한 준거(Criteria for the Life History)에서 생애사 연구를 방법론적으로 정립하려 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시간이란 넓은 맥락에서 개인에 대한 내러티브적 설명을 통해서 생애를 해석한다. 이런 면에서 생애사 연구의 방법은 자서전이나 전기, 구술사 등의 연구보다 더욱 진화된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사 연구는 개인적 삶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연구 방법론이다(Dollard, 1935: 278). 즉, 생애사 연구방법론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사회문화적 요인에 연결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문화연구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Cole & Knowles(2001: 12)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다 넓은 사회적 조건 혹은 맥락을 발견하는 창으로 생애사 연구방법론을 간주하였다. 김영천·한광웅(2012)도 생애사 연구를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혹은 생애담을 통하여 사회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론은 개인의 생애사를 매개로 하여 개인과 사회, 주관과 객관, 행위와 구조 등 사회학의 고전적인 이분법을 넘어서 사회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이희영, 2005: 121-122).

둘째,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역사적 삶을 추적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공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여기에서 '한 개인의 역사적인 삶을 추적한다'는 의미는 그동안 평범하거나, 주변화 되거나, 침묵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그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듣고, 보며, 읽는 것을 말한다(Riessman, 2008: 9). 그리고 '역사적인 삶을 추적 한다'는 의미는 과거 삶에서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이 현재 삶의 모습과 질 그리고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한경혜, 2005: 1). 물론, 생애사는 특정 개인의 삶의 전체나 일부에 대한 구술적 및 회고적인 이야기이다(Watson & Watson-Frank, 1985: 2). 그러나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회고적인 내러티브를 통하여 시간 대별의 경험과 사건의 구체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참여한 개인이 회고적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변화와 행위를 함께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연구의 방법론이다.

2) 생애사 연구의 의의

생애사는 삶의 주체인 한 인간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행위와 체험이 그 시대의 사회가치와 어울려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특성으로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가는 것이 생애사이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나와는 다른 타인의 삶과 이질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질적 문화의 대표성을 띤 개인의 삶을 그 개인의 관점에서 구술하고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역사학자인 반 툴멘(Dulmen 1997)은 『개인의 발견』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인간을 개인적으로 파악하려는 서구인들의 현대적 의식을 분석하고 생애사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개인화 과정은 사회발전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확장과 결부되어 있으며 개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놓인 개인의 삶과 행위의 맥락 속에서 규정된다(Dulmen, 1997: 17). 따라서 개인을 주제화하는 생애사 연구는 언제나 사회문화적 및 역사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Dulmen, 1997: 68).

실제로 미국 문화인류학의 경우 사라진, 아메리칸 인디안의 문화를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애사 방법이 나왔고, 미국 사회학의 시카고학파는 일탈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을 행위자의 어린 시절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 생애사를 수집하였다(유철인, 1990: 111).

무엇보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직업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이다(Wicks & Whiteford, 2006: 94-100). 직업적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경험의 시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지리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문화는 단편적 사건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개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이다. 이처럼 타인의 삶과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삶의 배경, 즉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함께 따라가는 생애사 연구가 필요하다. 생애사 연구는 그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느낌을 구술하고 그 맥락과 의미들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그래서 생애사 연구는 해석적으로 접근된다. 생애사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문화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해석하는 자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자신의 생

애사를 구술하는 사람도 현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연구자는 이것을 또 다시 현재라는 시점에서 재구성한다(박성희, 2004). 연구물을 보는 사람 역시 해석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해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영신(1999)은 이처럼 타인의 생애를 해석해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각각 따로 떨어져있던 개인의 경험들이 특성을 갖게 되고 문화적 의미를 가지며 공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생애사 수집은 이야기하는 사람과 묻고 듣고 기록하는 연구자간의 협동 작업으로 인식하여, 수집된 생애사에 대한 해석도 다른 사람의 생애사를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생애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의 “나”(self), 삶,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생애사에 대한 인식 변화는 바로 문화에 대한 생각이 “다름의 정형화”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유철인, 1990: 111).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연구자와의 협동 작업을 통하여 개인적 경험을 넘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3) 제주해녀의 생애사 연구

제주해녀는 제주여성들만의 특수한 문화 속성들을 갖고 있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큰 섬이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의 순응, 바다를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공존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을 것이다. 제주해녀들은 별다른 기계 장비 없이 바다에서 물질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다가 주는 위험한 순간들을 단지 몸으로만 이겨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제주해녀들은 한 가정의 아내이며 어머니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기 위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도 바다로 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해녀는 대한민국의 강인한 여성상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김미경, 2015: 90-91).

제주해녀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본래 그 문화원형⁴⁾이 지니고 있는 스토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에 대한

4) 문화원형이란 정치, 경제, 의·식·주, 인물, 예술분야,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현장 연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녀가 가지고 있는 삶과 생활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제주 현장에 가서 해녀들을 직접 만나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우선 들어야 한다(김미경, 2015: 93). 스토리텔링은 적당하게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스토리(문화원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서 그 사실에 대한 스토리(story)를 텔링(telling)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경, 2015: 9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제주해녀에 관한 각종의 기록과 연구자료, 직접 대면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녀들의 제주해녀로서의 삶과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애사 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제주해녀의 생애사 연구는 해녀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너머 유교문화권 아래 근대의 제주여성들이 나잡으로부터 시작된 물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만 했었던 이유에 대해 인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바다에서 어부인 남편을 잃거나 4.3사건 등으로 가정경제의 주체인 가장부재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실질적 가장과 경제생산자적 역할을 받아들였다. 유교문화권에서의 전통적 성역할을 뛰어넘고 척박한 자연을 이겨내야 했던 제주해녀의 노동관과 주체적 삶의 인식은 인간승리의 생생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손색이 없다.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21세기는 단연코 문화콘텐츠의 시대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소비한다. 이처럼 문화콘텐츠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기존의 ‘문화’는 ‘콘텐츠’로의 확장된 개념 정의를 가진다. 200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의한 문화콘텐츠의 개념은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및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활용, 재생산된 모든 가

하며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원동력이 된다. 문화원형의 발굴과 재해석의 노력은 콘텐츠 제작과 산업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 되어야할 연구이다.

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 등의 포괄적 개념”이다. 그리고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의된 개념은 “인간의 감정,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여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 즉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비디오, 방송, 음반, 캐릭터, 만화, 공연”등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에 기초하여 생산-보급되는 문화와 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콘텐츠의 개념 정립과 영역 설정이 어려운 것은 문화콘텐츠가 지닌 속성 때문이다. 문화콘텐츠는 시스템적으로 문화와 산업을 연결한다. 문화와 산업의 결합력으로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개념 역시 점차 우리가 지적·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무형 자산의 분야로까지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용어가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다. 기존의 서사(narrative)를 대체할 만한 개념으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야기성의 서사화’, ‘사건의 현재진행성’, ‘이야기성의 흥미성’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토리’(Story)와 ‘텔’(Tell)과 ‘잉’(ing)의 합성어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로서 말해지며 현재적이고 감각화의 지표로 구현된다. 즉 스토리텔링은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어느 한 가지 항목만으로 구현할 수 없다. 세 가지 요소가 불가분의 유기적 구조를 형성할 때 스토리텔링으로서 기능을 갖고 새로운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스토리 디자인은 특히 문자 위주의 아날로그 시대에 견줘 영상 위주의 디지털영상콘텐츠들은 현장성이라는 맥락을 전제로 이야기성을 구현한다. 한편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성에 의해 유동적이고 변형 가능한 구술문화의 특성을 드러낸다. 즉 스토리텔링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의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버전으로 거듭나는 장르라 할 수 있다(한강희, 2014: 544-545).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문화원형 One Source를 Multi-Use하게 잘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성공시켜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해녀라는 문화원형의 가치를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극대화 시키려면 무대 공연예술로 무대에서 올리고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도 열어서 적극적인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김미경, 2015: 118-119).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문학을 비롯한 텍스트 콘텐츠와 사진, 드라마, 영화 등의 비텍스트 콘텐츠로 제주해녀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미래세대까지 제주해녀의 문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Ⅲ.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사례분석

1.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

제주해녀는 기계 장치 없이 맨 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로서 바다밭을 단순 채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꾸어 공존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혜를 세대에 걸쳐 전승해옴으로써 고유한 문화를 형성·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물질 작업은 문명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 필요성을 들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1) 제주해녀의 역사와 삶

제주해녀의 역사는 섬사람의 생활사이면서 사회사가 된다. 제주해녀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역사 문헌 기록은 『삼국사기』다. ‘해녀’라는 언급이 있었다기보다 ‘진주를 캐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녀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삼국사기』 중 「고구려본기」를 보면 설라(제주)에서 야명주(진주)를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삼국시대 이전부터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복을 남성 포작인들이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629년 이진이 쓴 『제주풍토기』엔 직접적으로 해녀가 등장하고, 『조선왕조실록』, 이익태의 『지영록』, 위백규의 『존재전서』 등의 여러 문헌자료에 나타나고 있다⁵⁾.

제주의 부녀자들은 남성 못지않게 부지런했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들은 7-8세가 되면 물해염을 배우고 18세가 되면 물질 기량이 아주 뛰어나게 되고, 35세 정도가 되면 아주 능숙한 상군 해녀가 된다. 조선시대 진상품

5) 해녀박물관 (2012). 제주해녀. 13쪽.

중에 해산물이 많았고 특히 전복은 주요한 품목이었다. 이것들을 모두 해녀가 채취해야 했으니 진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해안 마을 여인들은 바다에서 일해야 했다. 그 수량이 많아서 그것을 채우는 일 때문에 백성의 고통이 컸다는 기록도 있다. 해녀들은 바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집안일을 도맡은 주부이자 철 따라 농사일을 거드는 농부이다. 제주의 농토는 척박하여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생활을 겨우 꾸려가는 형편이었다.

해녀의 생활은 바다에서 일하면서 내뿜는 ‘숨비소리’에 잘 나타나있다. 깊은 바다 아래에서 물질작업을 하다가 숨이 가쁘면 재빨리 바다 위로 올라와 짧은 시간, 한꺼번에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호흡을 한다. 이 때 ‘호오이 호오이’ 소리를 내게 된다. 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숨이며 소리이고, 척박한 제주도에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소리이다.

해녀들은 바닷속을 마을길처럼 훤히 알고 있다. 마을 바다 아래의 지형과 조류의 변화, ‘물건’인 해양생물이 많은 곳 등을 꿰뚫고 있다. 그리고 계절마다 생육이 다른 해양생물의 상황과 가장 효과적인 채취시기를 알고 있다. 값이 나가는 우뚝가사리도 최상품을 채취하는 시기가 매년 다르고 전복, 소라 등도 산란기를 피하여 작업하고 있다. 이처럼 경험들로 축적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식은 마을의 해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승된다.

해녀들은 마을 단위의 해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바다 밭의 관리와 마을어장 규약을 어촌계, 해녀회 단위로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다. 각 어촌계는 어장의 경계, 해산물의 채취자격, 해산물 종류에 따른 채취방법과 채취기간 및 금채기간 등 제주해녀의 물질관행을 마을, 어촌계, 해녀회 단위의 규약으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물질작업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어 혼자서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해 놓은 규약과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또 물질할 때는 역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해녀들은 그 집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 구한말부터 ‘계’의 형태로 자생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출가해녀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어업공동체가 조직되었다.

해녀는 집안경제의 주체이다. 밭농사만으로는 자급자족하기 힘든 제주도에 집

안에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해녀는 육지물질을 가서 집중적으로 일하며 큰돈을 마련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결혼할 때 비용으로 쓰거나 자녀의 교육비나 집안의 대소사를 위해 매우 유용하게 쓴다. 기록에 의하면 제주해녀는 19세기 말경부터 고향을 떠나 타지에 나가 일하는 ‘출가(出稼)’가 관찰되는데 가깝게는 다도해 연안부터 시작하여 경상도·전라도·강원도·함경도 청진에 이르기까지, 국외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일본 쓰시마 섬(對馬島), 가고시마(鹿兒島), 나가사키(長崎) 등지까지 나가 일했다. 1930년경에는 4,000여 명이 3월에 출가하여 추석이 가까워지면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관제 해녀조합이 중간 상인들과 결탁해서 해녀의 이익을 수탈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횡포에 맞서 싸웠다. 1932년 1월 12일, 세화리 5일장날, 신임 도사(島司)가 이곳으로 시찰 오는 날에 구좌면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 우도 마을, 성산면 오조리 마을의 해녀 700여 명이 해녀 차림으로 행진하면서 조합의 비리를 폭로하고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으려는 자발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주해녀들은 예로부터 물질작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의 길을 만들거나 학교건물을 짓는데 큰 보탬을 주었다. 성산읍 온평리 해녀들은 1950년 화재로 마을의 학교 교실이 전부 불에 타 없어져버리자 마을의 바다 한쪽 경계를 ‘학교 바당’으로 정했다. 그리고 미역을 채취해 벌어들인 돈 전부를 학교 건립자금으로 헌납하였고, 결국 1951-58년에 걸쳐 학교를 재건하게 된다. 이후 학교 기성회에서는 1961년 온평 초등학교에 공로비를 세워 해녀들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

해녀에게 바다는 일터이고 생명줄이다. 그곳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활 터전이기엔 외면할 수 없다. 여자로서 바다 깊숙이 들어가 일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지혜와 끈기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과 맞서기도 한다. 그래도 평생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물질이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바다를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따스해서 어머니 태중처럼,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다. 해녀는 바다의 딸이다.

해녀 속담 중에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맨몸으로 바

다에 들어가 자신의 의지로만 호흡조절을 하면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물질작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화와 맞물려 점점 새로 물질을 배우는 사람이 줄고, 해녀 대부분이 7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해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해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1965년 2만 3천여 명이던 제주 해녀들의 수는 10년 후인 1975년에는 1만 4천여 명으로 39% 감소하였고, 1990년대 이후 7천명 이하로 2010년 기준으로는 5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 연령별 해녀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	80세 이상
계	4,377	-	10	53	563	1,411	1,853	487
비율(%)	(100)	-	(0.2)	(1.4)	(12.9)	(32.2)	(42.4)	(11.1)

<표 2> 연도별 해녀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70	'80	'90	'00	'05	'10	'11	'12	'13	'14	'15
해녀수(명)	14,143	7,804	6,827	5,789	5,545	4,995	4,881	4,574	4,507	4,415	4,377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의 2015년도 해녀 관련 사업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제주해녀문화 재조명 및 역사 발굴 사업, 잠수탈의장 개보수 등을 포함하여 총 35개 사업에 국비 17억 4,600만원, 지방비 20억원, 자부담 약 1억 8천만원 등 총41억 9,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 어촌의 현실은 세계적 이슈들에 영향을 받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의 상승은 해초의 생육조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 수산물 시장의 변동이 해녀들의 일상적 생활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유엔(UN)보고서는 환경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그 책임은 인류사회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재난으로부터 어느 지역, 국가도 자유롭지 않다.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특정 해양자원의 심각한 감소는 해양 생태계의

6)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해양수산현황 참조.

먹이사슬을 교란하고 인간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점차 고령의 해녀들이 물질을 그만두고 있으며 새로운 어로기술의 도입도 시작되고 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부여되게 된다면 공동어로의 전통적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어로기술에 의한 사회관계는 해안마을 주민들의 균형적 호혜관계를 변형시킴으로써 어촌의 전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해녀들의 물질은 예로부터 마을과 그 주민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해녀들에 의해 바다의 ‘물건’이라 일컬어지는 연안자원은 공동체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현대 사회에서도 해녀는 오랜 시간의 경험을 가진 전통적 어로집단으로서, 자원고갈을 막으며 자연과 함께 인간이 어떻게 지속적 삶을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여성으로서 생존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인한 삶의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으로서의 물질작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정체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지배적이고 또한 딸에게 굳이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들에게는 나잡업에 대한 천시, 그리고 자신이 못살았기 때문에 물질을 선택해야 했던 경험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날 제주의 관광산업은 제주해녀를 관광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성적 대상의 이질화된 이미지로 재현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자기 비하와 소외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안미정, 1998: 185-188).

2016년 문화유산 등재를 낙관하고 있는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해녀는 4,377명으로 일본의 217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바다를 떠난 해녀가 92명이다. 앞서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주해녀 53% 이상이 7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다. 호구지책으로 해녀로 살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그녀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해녀 직업을 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딸이 해녀가 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의 삶은 문화유산 등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실상은, 사회·문화적으로 존중받는 자부심을 주는 직업이기보다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물질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 직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처럼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들에게 사회·문화적 자부심과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 시대 제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제주해녀의 삶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물질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제고를 통해 미래세대까지 제주해녀의 삶과 혼이 지속가능하게 전승될 수 있다.

2) 제주해녀문화 : 생(生)과 사(死)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깊은 바다 속에서 하는 물질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해녀들끼리 서로 살피주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조직을 통해 공동 작업이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다밭의 제한된 공간에서 연령의 노소(老少)와 기술의 상·중·하에 관계없이 생산과 판매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해녀들은 물질 노동의 특성상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질서와 규약을 지키면서 이끌어 가고 있다. 마을 해녀들은 나이와 물질 기량, 덕성에 따라 대상군 해녀부터 상군 해녀, 중군 해녀, 하군 해녀 까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해녀들의 조직인 해녀회는 신입 해녀들을 교육하는 한편 어장 이용에 대한 규칙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 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한말 이후부터 지연·혈연에 따른 상호 협동조직인 ‘계’의 형태로 자생적인 공동체가 이뤄졌으며 출가 해녀의 권인 보호를 목적으로 어업공동체가 조직됐다.

특히 ‘불턱’은 그러한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제주 해녀들의 공간이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 곳이며 물질작업을 하는 중간 중간 쉬는 장소다. 등글게 들담을 에워싼 형태로 가운데 불을 피워 바닷물로 젖은 몸을 덥혔다.

이곳에서 물질에 대한 지식과 물질하는 요령, 바다 밭의 위치 등 물질 작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전수·습득하며 해녀 간 상호협조를 재확인한다. 또 회의를 진행해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공동작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특히 불턱에서 해녀들은 대상군의 최고서열과 상군, 중군, 하군의 위계질서와 그에 따르는 의무를 배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엿한 해녀로 성장한다.

아직은 바다가 서툰 아기해녀나 오랜 세월을 입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바다에 나선 할망해녀의 망사리에 한 움큼 물건을 퍼주는 ‘계석’과 잠수 중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수눌음’으로 이어가는 제주의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는 물질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문화다⁷⁾.

3) 제주해녀문화 : 공동작업과 굿, 노동요

해녀의 바다에는 배려와 나눔 그리고 기부의 문화가 녹아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 해녀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실감할 수 있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고 해녀들이 말하듯이 물질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이러한 생업을 바탕으로 신에게 의지하는 생활에서 생겨난 무속신앙과 노동요, 언어표현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해왔다.

이로 인해 제주해녀들은 영등달인 음력 2월이 되면 영등신에게 풍어와 해상의 안전 등을 비는 영등굿을 한다. 영등신은 음력 2월 1일에 제주도로 들어와 같은 달 15일이면 우도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며 제주도에 있는 동안 바닷가를 돌면서 미역과 전복, 소라, 전초 등의 씨를 뿌려 바다를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이와 함께 제주해녀들은 매해 봄이 되면 해신당에서 바다의 여신인 요왕할머니(용왕할머니)에게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의례인 ‘잠수굿’을 지낸다. 잠수굿은 영등굿에 비해 잠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녀들의 무사조업과 어업의 풍요를 위해 치러진다. 잠수굿을 하며 해녀들은 요왕할머니의 딸과 손녀가 되며 한 할머니의 자손으로서 해녀들은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한다.

그 중 음력 3월 8일에 동김녕리에서 진행되는 잠수굿은 해녀공동체를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의례이며 축제다. 잠수굿은 김녕리 해녀회에서 주관하며 어촌계에서 도움을 준다. 잠수회에 소속된 해녀들이 1년간 물질을 통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굿에 쓰이는 비용을 준비하면서 생업과 의례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다. 제주해녀의 무속의례는 무사조업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함은 물론 잠수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는 등 해녀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7) 제주신보, “(3)제주해녀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2308>>, 검색일 : 2016.6.1.

고 전해지고 있다⁸⁾.

해신당은 해녀들이 주로 드나드는 당으로 해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성스러운 곳이라 할 수 있다. 해녀들이 바다밭을 일구면서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기를, 또 많은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기를, 남편과 자식 모두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비는 의례 장소다.

이러한 해녀의 작업 방식인 ‘물질’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녀는 호흡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시간을 제한한다. 잠수 시간을 줄여 수확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또 해녀는 오로지 스스로 다시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생물 중 다 자란 생물만 채취하며 해녀 공동체가 속한 영역에서만 작업한다. 이러한 해녀의 바다에 대한 특별한 관념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은 생태적 삶을 보여준다.

해녀들은 여름철에는 하루 6-7시간, 겨울철에는 하루 4-5시간 정도 물질을 한다. 한 달에 약 15일간 물질을 하는 데 물때가 좋은 일주일간 연이어 일한 후 약 8일간 쉬고 다시 일주일 정도 물질을 한다. 썰물이 가까워지면 밭일을 하다가도 물때에 맞춰 바다 밭으로 내달린다. 마치 물때에 맞춘 생태 시계가 따로 있는 듯하다.

해녀들의 작업은 연중 시간표를 갖고 있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수확이 가능한 밭이다. 바다의 씨앗은 영등할망이 바람을 타고 와서 뿌린다고 여긴다.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툇과 우뭇가사리, 미역을 채취하고 그 밭에서 자라는 전복과 소라, 성게 해삼, 문어를 거둬들인다. 최상의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시기가 매년 다르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복의 산란기로 전복을 잡는 것을 금하며 6월부터 9월까지 산란기인 소라는 여름 내내 잡을 수 없게 하는 등 조개류를 캐는 시기도 산란기를 피해 작업하고 있다. 이는 바다 밭의 황폐화를 막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내다본 오래된 전통이 해녀 문화에 내재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물질’은 단순한 노동이나 직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함께 발달해 온 삶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해녀는 맨 숨, 맨손의 상태로 바다와 환경이라는 자연 생태계에 잘 적응해 민속 지식과 잠수 기술을 축적하면서 ‘여성생태주의 실천자’로 평가되고 있다⁹⁾.

8) 제주신보, “(4)제주해녀만의 문화상·해녀들의 무속 신앙”,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782>>, 검색일: 2016.6.1.

한편 제주해녀가 창조하고 전승시켜온 독특한 문화에는 무속신앙 이외에도 노동요인 해녀노래가 있다. 물결 넘실대는 제주의 바다에는 어디를 가나 해녀노래가 있었다. 해녀들은 육지나 섬으로 물질을 나가는 뚝배에 노를 저으면서 혹은 테왁을 한 쪽 어깨에 짊고 바다로 뛰어들며 노래를 불렀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바다에서 해녀는 삶의 대한 의지를 노래를 통해 분출했다.

‘해녀노래’는 본래 ‘노 젓는 소리’에 속하는 어업노동요로 ‘해녀 노젓는 소리’, ‘네 젓는 소리’, ‘잠네소리’, ‘잠수질소리’, ‘이어싸 소리’, ‘이어도 사나’라고도 한다. 해녀노래는 제주도에서만 불리어지다가 제주 해녀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등 육지 출가 물질을 가면서 한반도 해안 지역에까지 전파됐다.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사례

제주해녀 문화는 제주의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제주에 전해지는 해녀에 관한 전설은 ‘산호해녀’, ‘진주 할망’, ‘만행이 할머니’, ‘용궁 올레’, ‘점복 할망’, ‘해녀아들 송중이’등이 있는데 각 전설마다 다양한 이야기는 물론 해녀의 선행과 덕행 그리고 용궁의 모습이 등장한다. 해녀가 노를 저어 육지로 출가 물질을 나갈 때 불렀던 노래는 해녀들의 힘든 노동과 고단한 삶의 정서를 오롯이 담고 있어 그녀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외에도 해녀만이 가진 항일의 역사는 제주 근대사와 경제사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해녀들이 하는 물질작업은 바다생태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 놓은 독특한 기술이면서 민속지식이다. 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바닷가 등 해녀생업과 생활 문화현장은 해녀의 삶을 고스란히 품고 있으며 해녀 공동체의 상징인 불턱과 해녀들의 성소인 해신당과 무속의례 등에서 해녀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제주해녀는 제주에만 있는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문화이자 제주의 문화정체성과 독특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 최근 해녀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

9) 제주신보, “(2)제주해녀의 생태자·친환경적 어업활동”,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idxno=1981845>>, 검색일 : 2016.6.1.

화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¹⁰⁾.

그동안의 제주해녀와 그 문화를 활용한 기존의 문화콘텐츠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제주해녀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공연예술, 축제, 방송, 영화, 음악,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출판으로서의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서술할 것이다.

1)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

제주해녀와 그 문화에 대한 관심에 비해 문화콘텐츠 구축 작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해녀 관련 유·무형 문화재 지정현황은 중요무형문화재 1건,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1건,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지정 15건이 전부다. 해녀문화 세계화를 내건 ‘해녀축제’도 아직까지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제 이름값을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녀문화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시행되고 있다¹¹⁾. 동 조례는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제작 및 창업지원, 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필요한 기록화 작업이나 콘텐츠 개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제정 논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도는 2009년 해녀문화 보전 및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지 무려 2년 만에 세계화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1년 9월 확정된 1단계 기본 계획(2011-2015)에서 제주도는 615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해녀의

10) 제주신보, “⑤뮤지컬·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해녀문화 꽃판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87>>, 검색일: 2016.6.1

11) 2014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

날’ 지정, 해녀상 건립, 해녀문화교육센터와 해녀문화 체험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였다. 2016년 11월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2단계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연구용역을 통해 △ 제주해녀문화 현황 기초조사 및 국내외 유네스코 등재 사례조사 △ 제주해녀문화 육성 기본계획 △ 해녀문화 세계화 정책방향 수립 △ 제주도와 중앙정부와의 핵심과제 발굴 △ 제주해녀박물관 현황 분석 및 세계화를 위한 거점 활용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를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¹²⁾.

한편, 2014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수립에 나섰다. 계획안에는 △ 문화콘텐츠 육성 기본방향 △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투자 △ 문화콘텐츠 관련시설, 기관 현황조사 및 유치·설립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연계 등의 추진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제주에 최적화된 실현가능한 문화콘텐츠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기본으로, 문화콘텐츠 변화에 부응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 △ 제주지역 문화콘텐츠 육성방안 △ 문화콘텐츠 전문기관 설립방안 및 영상·콘텐츠산업 운영방안 △ 해외창작자 유입방안 △ 문화창작 콘텐츠를 산업화하기 위한 유통방안 및 인프라 구축방안 등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2015년 7월 10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올 3월 ‘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음에 따라 문화 관련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시된 정책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12) 제민일보,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693>>, 검색일 : 2016.6.1.

보고서 주요정책 제안사업으로는 △ 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제작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콘텐츠 테마형 투자조합’설립 △ 기술공급분야, 문화콘텐츠 공급분야, 사업유통분야 연결을 위한 JDC첨단과학기술단지 내 ‘MTC’(Mixed Technology Cluster) 구축 △ 문화콘텐츠 산업계를 지원할 ‘영상콘텐츠 제작기술(CT)사업화’ △ 제주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및 문화콘텐츠 확충, CT 융합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제주 창조관광콘텐츠 국제가족여행 영화제 개최, (가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안) 등의 정책 사업이 제시되었다.

2016년 수립되는 제주해녀문화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그동안 진전된 내용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점들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제주해녀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하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으로 제주해녀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로 키우려는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2) 무대 공연예술

제주를 대표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연되는 해녀 문화콘텐츠 중 하나가 ‘해녀춤’과 ‘허벅춤’이다. 제주도의 전통을 상징하는 해녀 공연 예술작품은 1960년대 당시 제주여고 무용교사를 담당하셨던 고 송근우 선생(1930-1980)이 처음 무대에 올랐다. 1964년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제주를 대표해 ‘잠녀놀이’란 작품으로 참가했고 이후 1970년대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200회 넘는 전국공연을 하며 제주의 대표적 민속춤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일상 어업노동 도구인 테왁의 활용과 전통 양식의 해녀복을 착용하는 등 해녀의 전통을 계승하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2012년 제주설화와 민요, 해녀 문화를 버무린 판타지 뮤지컬 <숨비소리>와 2014년 12월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제주해녀를 주제로 여러 장르의 공연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진 <어멍의 바당>이 대표적이다. <숨비소리>는 모슬포 산호해녀의 전설을 모티브 삼아 해녀 전승 과정에 얽힌 제주의 문화와 사회상을 담고 천혜의 자연 유산인 제주의 산과 들, 바다를 영상으로 재구성해 무대 배경으로 꾸며 대중화 가능성을 검증받았던 작품이다. 특히, 메인 테마곡 ‘해녀의 노래’, ‘해녀 노

것는 소리’, ‘너영 나영’, ‘이야홍 타령’, ‘이어도 사나’, ‘서우제소리’등 제주 민요에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향토적인 소재는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트리고 현대극으로서의 시도를 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ITB)에 참가하여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어명의 바당>은 국악, 양악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고백하는 듯 진행되는 낭독 콘서트(제1장)와 상징성을 표현 한 현대무용(제4장)을 비롯해 실제 해녀들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극(제3장)과 실제 해녀들의 영상과 무대를 오가며 선보이는 소리와 춤(제2장) 등 다양한 장르가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콜라주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이 작품은 제주의 전통적 해녀문화, 강한 생활력, 자연과의 공존 등 해녀들의 세계를 감성적 공연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최근 작품일수록 해녀문화를 생생한 해녀 인터뷰를 통해 리얼한 감동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시도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3) 축제

2007년 제46회 탐라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해녀축제가 처음으로 열린 후 매해 치러지고 있다. 제46회 탐라문화제는 해녀문화와 물질생활의 모습을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한마당 축제의 성격으로 제1회 해녀축제가 기획되었고, 해녀박물관의 주관으로 구좌읍 하도리 박물관 일대에서 열렸다.

지금 탐라문화제라 부르는 제주 대표 문화축제의 시작은 1962년 ‘제주예술제’였다. 종합예술제 성격의 제주예술제는 3년 만에 막을 내리고 1965년부터는 한라문화제로 명칭을 바꾸며 도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탐라문화제 50년> 등 관련 자료를 보면 ‘해녀 공연’이란 명칭이 등장한 것은 1967년 6회 한라문화제였다. 이후 1968년에는 수상 퍼레이드를 통해 제주 수산업의 주역으로 대접받았다. 결정적 계기는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제주 개최와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이었다.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제주해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후 1996년 바다 축제 중 ‘해녀축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지만, 문화를 연계한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제주해녀가 제주 상징의 ‘문화 아이콘’이자 ‘문화’로서 세계인의 이목

을 집중케 한 것은 2002년의 한·일 월드컵 제주개최로 거슬러 올라간다. 축구를 통해 세계인들이 화합을 다지고, 세계인들에게 제주인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제주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고자 당시 제주도를 비롯해 4개 시·군과 예총도지회와 서귀포지부, 제주민예총, 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원 등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가 합심해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에 공을 들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제주 섬 해녀문화! 바다 건너 세계로’라는 타이틀을 내건 제주해녀축제이다.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주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해녀축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영등굿 본풀이를 주테마로 하여, 제주호를 선두로 월드컵 참가 32개국을 상징하는 배가 우도를 출발해 제주시까지 섬 일주를 하면서 읍·면 주요항에서 해산물의 풍요와 해상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굿을 펼쳐 제주굿의 우수성을 알렸다.

구좌읍 세화에서는 일제시대 일어났던 제주해녀항쟁을 재현하고, 잠수굿, 해녀경주, 해녀체험행사 등 해녀를 소재로 한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남제주군 화순해수욕장에서도 해신제, 미역해경재현, 잠수경연대회, 테우 경주, 해녀노래경연, 해산물 요리경연, 해녀해변 축구대회 등을 열고 제주해녀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린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주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의 핵심인 해녀축제를 통해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국내외로 선양하였다.

하지만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작 해녀축제는 제주해녀를 비롯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흔히 “해녀문화는 있는데 해녀가 없다”는 일침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해녀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축제라 부르고는 있지만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제한적이다.

한편, 해녀축제에서 가장 관람객이 많은 프로그램은 물질 체험이다. 물질 체험 역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하나는 해녀들이 직접 물질을 하는 모습을 관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녀들과 직접 물질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작업을 간접 체험하는 형태다. 이중 일부는 ‘해녀 양성’이란 수식어를 달면서 기존 해녀 공동체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통잠수기술자격증’도 공공연히 발급되고 있다. 관련 제도상 ‘민간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신

설·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품질이나 심사 공정성은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국가 공인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이전 취득한 자격은 효력이 없어진다. 내용에 있어 상·중·하군의 구분을 두는데다 단순히 잠수 기술과 채취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해녀공동체문화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 해녀축제는 일본의 해녀축제인 ‘아마 마츠리’(あままつり)와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일본의 아마 마츠리는 지역주민들이 과거의 전통적 풍습을 재현한다. 일본 내에서 아가가 많은 이시가와현(石川縣) 와지마시(輪島市)에서 해마다 아마 마츠리가 열린다. 와지마 오오마츠리(輪島大祭)의 행사를 지칭하는데 매년 8월 중,하순에 열리고 있다. 에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대표 행사라는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크고 순수한 민간 주도의 축제이며 축제를 지내기 위해 멀리 큰 도시에 나가 직장에 다니던 젊은이들도 고향에 돌아와 축제에 참가할 만큼 전통과 열의가 뜨겁다. 대표적인 야간 축제로도 유명한데 무대 이벤트가 아닌 마을의 공간을 잘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동선을 축제로 활용한다. 특히, 100여 명의 아마들이 밤바다를 횡단행진을 하고 난 뒤 물질의식을 치르는 장관은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전통문화복원이라는 의미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다.

4) 방송

2007년 방송된 드라마 <탐나는 도다>는 해녀 공동체를 전면에 앞세운 신선한 시도를 하여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2015년 MBC 드라마 <맨드롱 또뚝>은 환병 걸린 개미와 애정결핍 베패이의 사랑이라는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하는 로맨틱 코미디물로서, 아름다운 제주도 바닷가마을에서 ‘맨드롱 또뚝’이란 이름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청춘 남녀의 이야기다. 드라마 속에서 가장 오늘날의 젊은 해녀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 어촌계가 나오고 물질체험(해녀학교)을 운영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와 작업에 대해 강한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다.

5) 영화

일찍부터 문학이나 음악을 한정하지 않더라도 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작품들은

일반대중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1964년 박영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해녀>는 당대 최고인기 배우 최은희, 박노식 등이 출연하였다. 1999년 박광수 감독의 <이재수난>은 1901년 신축년 항쟁을 그렸는데 여주인공(심은하 분)이 물질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당시 제주해녀들의 생활을 영화팬들에게 각인시켰다.

2000년으로 들어서면서 스크린 속에서 해녀가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2004년 선보인 <인어공주>는 바다를 통해 어머니의 과거와 만나는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배우 전도연이 어머니와 딸, 1인 2역을 하면서 깊은 제주바다 아래를 자유롭게 자택질하는 해녀 물질모습을 연기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에도 해녀가 여러 작품들에 등장하였다. 2012년 선보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청순한 해녀모습과 함께 뛰어난 잠수 능력을 보여준 배우 민효린 이 여주인공 백수련 역을 맡아 특히 젊은 층에게 청순한 해녀이미지를 널리 알렸다.

이들 작품은 ‘픽션’이지만 ‘시대’에 대한 재현을 시도하였다. <이재수의 난>의 해녀 속화는 1900년대 초의 모습으로 민란을 돕는 여성들 대부분이 해녀였다. 해녀를 전면에 내세운 첫 필름 작품인 <해녀>에 출연한 주인공들의 모습은 1960년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인어공주> 속 연순은 1970년대를 그리고 있다.

2015년 작 <계춘할망>(감독 창감독)은 12년 동안의 과거 행적을 비밀로 한 채 제주도의 집으로 돌아온 손녀 혜지와 손녀를 깊이 사랑하는 계춘할망에 대한 이야기다. 손녀는 평생 물질하며 살아 온 해녀할머니와 함께 해녀체험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세상에서 유일한 자신의 우군을 얻게 된다. 해녀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이지만 무엇보다 배우 윤여정이 도시적인 이미지를 벗고 ‘평생을 제주에서 물질을 하며 살아온 생활력 강한’ 할머니로의 캐릭터 변신이 영화홍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2016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19일 개봉되었다.

여기에 오델 감독이 가칭 <해녀 이야기>라는 첫 대중상업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슬> 등을 통해 제주역사에 대해 슬프지만 유쾌하게 풀어내는 감각과 실력을 가진 감독의 해녀작품 역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스크린 속 해녀는 단순히 극의 소재나 극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실제 제주해녀의 삶을 영화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도 없었다.

실제 제주해녀의 삶을 영상매체를 통해 표현한 다큐 형식의 영상물들은 꾸준히 제작·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다큐라는 영상매체의 특성상 대중적이지 못하고 지역적 관심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 해 ‘문화공동체 서귀포사람들’이 제작한 늙은 은퇴 해녀들의 내면 세계까지 담아내었다고 평가받았던 <그림 그리는 해녀>는 2015년 제48회 휴스턴 영화제 여성이슈 부문 수상, 올해 프랑스 툴루스에서 열린 그린 필름 페스티벌에 초청되기도 하며 해녀이야기에 대한 세계적 호기심과 애정을 받으며 새로운 해녀문화콘텐츠 활용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 제주도출신 다큐멘터리 제작자 고희영 감독의 <물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제주 우도에서 만난 ‘해녀의 인생과 비애’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바다 물질에서 욕심을 내 빨리, 더 많이 가지려 자신의 숨의 길이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숨을 먹고 차가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를 두고 해녀들은 ‘물숨 먹는다’고 하는데 물숨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욕망을 다스리는 해녀들에게만 바다는 넉넉한 품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2관왕을 차지하는가 하면 2016년 4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방송마켓 ‘MIP-TV’에 출품하는 등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선보일 작품명은 ‘Breathing Under Water’이고 국내에서는 배급사 ‘진진’과 함께 오는 9월 상영을 준비 중이다.

6) 음악

(1) 해녀노래

제주해녀가 창조하고 전승시켜온 독특한 문화에는 무속신앙 이외에도 노동요인 해녀노래가 있다. 해녀노래란 제주해녀들이 물질 작업장으로 오갈 때나 제주도에 한반도로 출가물질을 나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생과사를 넘나드는 바다에서 해녀는 삶의 대한 의지를 노래를 통해 분출하였다. 특히 해녀노래의 사설은 여느 노동요와는 달리 물질 작업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인 노젓기, 해녀들의 애환과 한반도로의 원정물질 등 해녀의 노동과 해녀의 삶 등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해녀가 노를 저어 육지로 출가 물질을 나갈 때 불렀던 노래

는 해녀들의 힘든 노동과 고단한 삶의 정서를 담고 있어 그녀들의 억척스러웠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발동선이 생긴 1970년대 이후 노동 현장이 바뀐에 따라 물질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해녀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해녀노래는 1971년에 '제주민요'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전송되다가 1989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현재까지 전송되고 있다. 1993년 구좌읍 행원리 고 안도인이 보유자로 지정 전송돼 오다 2005년에 구좌읍 행원리 김영자·강등자가 보유자로 지정됐으며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좌읍 행원리에 해녀노래 보존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한편, <해녀의 노래>(해녀항일가)는 1933년 제주해녀항일운동에 나섰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우도 출신의 항일운동가 강관순 선생(1909-1942)이 당시 유행하던 <동경 행진곡>에 가사를 붙여 만든 총 4절의 노래다. 하지만 이 선율은 바로 1929년 개봉된 일본 영화 주제가 그대로였다. 일상에 찌들고 일제에 꺾박받던 제주해녀들이 궁핍한 삶과 치가 떨리는 일제에서 벗어나고자 절절한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곡이었던 것이다. 일본 곡에 가사를 붙여 불러야 했던 시대적 아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제주해녀항일운동의 근거지였던 우도면과 성산읍, 구좌읍 일대에선 여전히 해녀들의 애창곡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해녀의 노래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 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젓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해봤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은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 하도다
가연은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이에,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양방언은 당당하고 밝은 활기가 넘치는 해녀를 상징하는 선율을 만들었고, 그 선율에 소설가 현기영이 노랫말을 붙여 2013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제주판타지페스티벌에서 새로운 <해녀의 노래>를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 음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노래가 너무 슬프거나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늘 힘든 건 아니라'는 제주해녀들의 바람을 담아 만들어진 노래이다.

기존에 불리던 <해녀의 노래>가 삶에 찌든 고달픈 해녀를 묘사하고 있다면 새로운 <해녀의 노래>는 이 시대 해녀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켰다. '나는 해녀, 바다의 딸'이라고 당당한 자기선언을 하는 21세기형 제주해녀의 진취성과 물질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부각시켜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담아내었다. 발표 당시 19명의 하도리 해녀들이 직접 참여하여, 돌문화공원의 하늘연못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해녀의 노래(Haenyeo Song)
(현기영 작사, 양방언 작곡)

나는 해녀, 바당의 딸
만경창과 이 한 몸 내던정
바당 밧디 농사짓젠

열 길 물속을 드러들엄져

우리집 대들보, 나는 해녀
가슴엔 테왁 손에는 메역 호미
밀물과 썰물, 해녀인생
어서가자 이어짜
물때가 뒤텔져

나는 해녀, 바다의 딸
만경창과 이 한몸
바다에 내던져
바다밭에 농사지으려
열길 물 속을 드러든다네...

우리집 대들보 나는 해녀
가슴엔 테왁, 손에는 미역 낫
밀물과 썰물 해녀인생
어서 가자
이어짜
물때가 되었으니

(2) 그 외 음악적 시도

제주 로컬 브라스 밴드인 사우스카니발은 2015년 라틴 리듬에 해녀들의 삶을 담은 싱글앨범 <좁녀 이야기>를 발매하는 등 해녀문화의 콘텐츠화를 시도해왔다. 앨범에 실린 ‘좁녀’와 ‘어멍’, ‘오돌또기’는 라틴과 레게 리듬으로 따라 부르기 쉬운데다 다음 세대를 고려한 쉬운 가사로 호평을 받았다. 2016년 사우스카니발은 제주 해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단을 꾸려 2주 정도 쿠바에 머물며 제주해녀 홍보물을 나눠주고 테왁 등 물질 도구를 전시하며 제주해녀를 홍보하였다.

7) 인프라사업

(1) 해녀박물관

2006년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해녀 문화를 전승·보존하고, 21세기 문화예술의 메카로 가꿔 나가고자 해녀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녀박물관 현장학습교육과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등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과 큰 호응 속에 아트북 만들기, 해녀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딱딱한 학습이 아닌 즐기며 배우는 해녀문화교육이 이루어졌다. 해녀박물관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¹³⁾.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연 면 적 : 4002m², 지하1층, 지상3층

건 축 : 으뜸의 아름다운 선과 방사탑 이미지

주요시설

- 전시시설 : 영상실, 제1전시실 해녀의 삶, 제2전시실 해녀의 일터, 제3전시실 바다, 어린이해녀체험관, 공연장, 야외전시 등
- 부대시설 :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와 해녀들의 물질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14종의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뮤지엄 샵

연 혁

- 2000.09.15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01.11.28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기본계획용역예산 확보
- 2002.02.08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기본계획용역 착수
- 2002.06.07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02.10.04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기본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2002.10.30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자문위원회구성 17명
(박물관 2, 학계 5, 전문가 7, 기타 3)
- 2002.12.11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3.08.05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실시설계용역 완료

13)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enyeo.go.kr/>>, 검색일 : 2016.6.1.

- 2003.11.12 세화도시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 2003.12.23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공사 착공
- 2004.03.23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축협약
- 2005.09.12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건축) 준공
- 2005.10.06 제주해녀박물관으로 명칭 확정
(제주어촌민속전시관 → 제주해녀박물관)
- 2005.11.25 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준공
- 2005.12.11 제주해녀박물관 기구 및 정원 승인 (1사업소 2담당 12명)
- 2006.02.17 제주해녀박물관관리사무소 개소
- 2006.05.14 제주해녀박물관 전시물보강공사 제작설치 준공
- 2006.06.09 제주해녀박물관 개관
- 2006.07.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제주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 2006.10.01 제주항일기념관이 해녀박물관 관리사무소에 통합
(1사무소 3담당 20명)
- 2008.03.05 조직개편
(관광지관리사업소 해녀박물관관리사무소 → 문화진흥본부 해녀박물관)
- 2009.01.09 제주항일기념관이 해녀박물관에서 분리

햇수로 10년, 그동안의 노력으로 해녀박물관은 해녀문화 세계화의 거점으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해녀축제를 진행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자료 1,147점 기증으로 전시품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시공간 확보 등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해녀사, 제주여성이 거쳐야했던 통과의를 함축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주해녀의 삶이 전면에 배치돼 풍성해진 해녀 박물관은 도민은 물론 관광객이라면 한번은 반드시 찾는 문화유산의 거점으로서 그 기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학예사와 전시 해설사 등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인력 운영에 있어 해녀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문화적으로 소화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다. 박물관 및 미

술관 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들에서는 전문 학예사가 2-5명까지 배치돼 있지만 해녀박물관에는 전문학예사는 1명뿐이고 학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계약직 등 2명이 연구·조사·교육 등 일련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안동시 등 유네스코업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관련 업무가 새로이 해녀박물관에 맡겨지면서 그동안 해녀문화 세계화를 상징하는 해녀축제업무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과부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는 지자체 조직 구조상 해녀박물관의 위치와 기능·역할 간의 차이가 만든 불균형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인력충원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 전시 등을 통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직접 해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보존·계승해야 한다. 그들로부터 진정으로 배우고,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해녀문화도 진정성 있게 보존·계승될 것이다. 박물관을 통한 정보 습득과 축제를 통한 공유 작업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해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도 축제 매뉴얼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녀의 존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오래된 미래’라는 개념의 살아있는 전통이다. 해녀와 그들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같이 체험하고 공유하는 것만큼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는 없다¹⁴⁾. 문화공간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해녀 문화에 대한 공감대 유도다. 이를 위해서라도 해녀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해녀들의 생생한 현장이야기가 넘치는 박물관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2) 한수풀 해녀학교

2008년 한수풀 해녀학교(제주시 한림읍 귀덕리)가 해녀의 고령화와 바다자원의 황폐화, 젊은 세대의 해녀에 대한 무관심등 점점 감소추세인 해녀와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가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개교하였다.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물질하는 법, 호흡하는 법, 해산물채취법 등을 현직 해녀들이 참여자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해녀 물질 교육 프로그램

14) 제민일보, “살아있는 역사 지역 대표 문화유산 거점으로”,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24>>, 검색일: 201645

으로 현재까지 43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3여명은 해녀로 활동 중에 있다. 2012년부터는 학교시설 확충과 함께 해녀 체험장을 개설하고 일일 체험을 원하는 도민과 관광객은 해녀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해녀일상 체험을 위한 해녀의 집 운영과 해녀음식 체험 등도 실시하고 있다.

한수풀 해녀학교는 해녀의 명맥을 이을 전문 해녀 양성보다는 기본기 습득과 경험 축적 등 해녀 체험에 치우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학교운영이 단순한 수증체험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실제 마을어장에서 조업을 못하는 전문적인 해녀 양성 기능도 미흡하고, 최종적으로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촌계와 수협, 해녀회 등에 가입해야 하는데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다¹⁵⁾. 이에 제주시는 해녀 육성사업의 단순히 수료생 배출 등 양적 확대 보다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해 수협과 해녀학교 운영 발전방안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운영주체를 한림 수협장으로 재편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수풀 해녀학교는 2015년 서귀포시 법환에서 해녀학교가 추가로 문을 열기 전까지 전국 유일의 해녀양성 학교였다. 최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는 제9기 한수풀 해녀학교 입학식에 명예입학생으로 참석하여 직접 물질을 해보는 등 해녀 체험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한수풀 해녀학교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운 영 : 한림읍 및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교 장 : 한림읍 귀덕2리 어촌계장
기 간 : 매년 3-4월 신입생 모집, 5월 개강, 8월 졸업
강 사 : 한림읍 귀덕2리 해녀회
프로그램 : 장비사용법, 잠수법, 호흡법, 해산물채취법 등(매주 토요일)
실 적 : 2008년(1기) 34명, 2009년(2기) 32명, 2010(3기) 37명 졸업
예 산 : 2010년 2,000만원, 2011년 1,500만원

(3) 법환 해녀학교¹⁷⁾

15) 경향신문 “나도 해녀가 되고 싶어요” 제주 한수풀해녀학교 수업 현장가보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t_view.html?aid=2015082152105&code=620117>, 검색일 2016.3.21.

16) 한수풀 해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cafe.naver.com/jejuhaenyeoschool1>>, 검색일 : 2016.6.1.

17) 법환 즈믄마을해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www.thehaenyeo.com/>>, 검색일 : 2016.6.1.

제주해녀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사라져 가는 제주 고유의 해녀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해녀교육의 산실이 되고자, 2015년 5월 23일 제주 최초로 전문적인 해녀 교육시스템을 갖춘 ‘법환동 좁너마을 해녀학교’ 개교식 겸 입학식이 열렸다¹⁸⁾.

법환 해녀학교는 한수플 해녀학교와 달리 보다 전문적으로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서귀포시와 법환 어촌계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어족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어촌계마다 신입 회원 가입을 꺼리는 탓에 제주에서 새로이 해녀가 되기로 어지간 해선 쉽지 않았는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제주해녀가 줄어들고 급기야 명맥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어촌계의 위기감과 서귀포의 설득 노력으로 16개 어촌계로부터 전문 해녀 교육을 받은 해녀를 신규 회원으로 받아주겠다는 조건부 약속을 받아내게 된다.

해녀학교는 법환동 어촌계의 주관으로 모두 4개 과정에 연 6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녀 양성반은 정착주민 및 도외 거주자 그리고 도민 등을 대상으로 총 80시간 물질과 해녀문화에 대한 이론교육을 비롯해 해산물 채취 및 건조, 요리실습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환동 어촌계 소속 해녀 21명을 실습강사로 위촉해 물질 및 해산물 채취 등의 실습교육을 맨투맨으로 진행하면서 교육생 출석률이 90%가 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교육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역 건조방법 및 이용법 △우뭇가사리 건조 및 우뭇만들기 △성게알 채집 △해녀복(물소중이) 만들기 △테왁 만들기 등 체험 교육을 비롯해 △해녀음식에 대한 이해 △제사와 굿 그리고 해녀 △해녀노래 △법환해녀문화와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이론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해녀양성과정 참가자들은 2개월간의 과정 수료 후 희망지역 어촌계에 준계원으로 가입·배치돼 6개월에서 1년간 인턴과정을 거쳐 정식 직업 해녀를 할 수 있다.

제주 최초로 전문적인 해녀교육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해녀의 자긍심과 자격증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기위하여 마련된 곳이 법환 해녀학교라 할 수 있다. 세계무대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대표적인 해녀문화를 실천적으로

18) 뉴스 "제주 최초 전문 해녀 교육 법환해녀학교 개교" <<http://www.revis.com.kr/detail/view.html?ID=&article=NSX20151220137389>>, 검색일: 2016.6.1

계승발전 시키고자 동분서주 하는 모습에 뜨거운 열정이 있다. 사라져가는 제주 고유의 해녀문화를 이어나가고, 지속가능한 마을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환 해녀 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당초 모집정원을 넘어선 33명의 제2기 해녀양성과정 입학식이 있었다¹⁹⁾.

(4) 성산포의 해녀물질공연

성산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매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3시, 하루에 두 차례 성산포 어촌계 소속 해녀들의 ‘해녀물질공연’을 볼 수 있다. 성산 일출봉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이들이 평생 업으로 살아온 물질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어도 사나’를 부르며 출어하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제주해녀들은 곧바로 성산포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물질을 하는 것이다. 5분쯤 물질 공연을 하다가 제주해녀는 큰 문어 한 마리를 들고 나타난다. 내용이 짧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콘텐츠를 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제주해녀들의 삶과 생활을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공연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연료는 무료이고 해산물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연료도 받아야 하고 바다와 어울리는 공연장도 마련해야 한다(김미경, 2015: 107)

(5) 혼인지 - 해녀의 집

김미경은 제주 온평리에서 <혼인지 - 해녀의 집>을 운영하는 오순덕 해녀의 구술을 통해 ‘혼인지’라는 제주의 신화와 연결하여 ‘빅 킬러’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외부인들이 잘 몰라서 못 찾아가는 혼인지를 위한 홍보 부스를 <혼인지 - 해녀의 집>에 설치하고, 혼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위한 홍보책자도 만들어 비치하고, 제주 온평리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신혼여행을 온 신랑신부들이 기념사진을 찍도록 혼례복도 마련하면 혼인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

19) 헤드라인제주, “법환해녀학교 입학식 21일 개최...신규 해녀 33명 육성”,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871>>, 검색일, 2016.6.1.

라 기대한다. 또한 <혼인지 - 해녀의 집>은 “혼인한 신혼부부들이 꼭 와서 소라구이를 나누어 먹으면서 미래를 설계하면 잘 산다”등의 스토리텔링을 창작하고 혼인지 삼성신과 벽랑국 세 공주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다정한 부부 모습의 기념품 판매,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주해녀가 새겨진 열쇠고리와 열쇠, CD 등 판매, 혼인지 설화의 재현 퍼포먼스, 제주해녀표 해산물이나 음식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주해녀와 제주의 명승지 혼인지를 함께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해녀들은 물질에서 얻은 수입과 공연 예술로 벌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가공생산업체를 운영해서 번 돈 등이 합쳐져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녀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²⁰⁾.

8) 만화·애니메이션

만화가 박승희는 ‘제주도 해녀 유네스코 등재 기원 문화 보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류문화인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8월 중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주해녀 만화책을 제작한다. 일본의 아마 문화와는 다른 제주해녀문화를 만화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자 직접 제주도에서 3개월간 해녀를 관찰하고 만화 제작에 들어갔다.

9) 캐릭터

제주해녀를 활용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는 ‘꼬마해녀 몽니’가 있다. 제주지역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아트피큐(대표 오태현)는 2005년 제주해녀를 테마로 한 캐릭터 꼬마 해녀 몽니를 탄생 시켰다. 현재 꼬마 해녀 ‘몽니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 상품, 동화책 등 다양한 장르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꼬마해녀 몽니 애니메이션은 현재 공중과 방송은 물론 대만과 디즈니랜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²¹⁾.

20) 김미경 (2015), 제주 해녀들의 삶과 생활을 활용한 공연 스토리텔링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1집, 89-122쪽.

21) 6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SBS 채널을 통해 꼬마해녀 몽니의 TV애니메이션 시즌2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가 전국에 방영되고 있다. 전편에 이어 이번 시즌2는 편당 15분 분량,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해녀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2014년 제주해녀 홍보영상과 제주해녀를 주인공으로 한 4D 애니메이션을 제작·배포 하였다. 현재 영상은 해녀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제주해녀를 소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또 해녀박물관은 2015년 1월 물소중이를 입은 해녀 ‘숨비’와 고무옷을 입은 해녀 ‘소리’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고 해녀 캐릭터를 활용해 실내 인테리어를 꾸미고 퍼즐상자 놀이를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용할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 상징물 응용매뉴얼 개발하였는데, 마스코트는 세계자연유산 화산용암의 상징적 모티브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 캐릭터 ‘돌이’와 제주의 해녀옷(소중이)을 입은 캐릭터 ‘소리’이다. 섬돌이와 해순이를 한 쌍으로 형상화한 ‘칠십리 축제’의 캐릭터는 서귀포 칠십리가 갖는 공간적 개념, 섬과 바다의 의미를 상징한다. 향토적인 옷차림과 소박한 표정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떠올리도록 제작되었다.

이처럼 민간은 물론이고 관에서도 수익 원을 들여 제주해녀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일회성 제작·활용에 그치고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꼬마해녀 몽니’ 역시 해녀이미지와는 적합하지 않는 이름이어서 보다 제주해녀의 긍정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0) 출판

소설 및 사진집 등 출판물을 통한 문화콘텐츠는 제주해녀와 해녀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단연 제주4·3사건을 화두로 <지상에 순가락 하나>

총 26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제주해녀의 가치를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전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흑룡과 대할망 해녀의 과거 이야기를 설명하는 나레이션 파트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목소리 더빙에 참여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꼬마해녀 몽니 시큰, 전국 방송...원희룡 목소리 ‘더빙’”,

<<http://www.headlinejeju.co.kr/?mcd=news&act=articleView&idno=277097>>, 검색일 : 2016.6.2

와 <순이 삼촌> 등을 쓴 소설가 현기영이다. 그는 기존 작품 <거룩한 생애>를 동화로 쉽게 고쳐 써 해녀로서 제주에서 질곡의 현대사를 몸소 겪은 여인 간난이의 삶을 통해 4·3사건에 얽힌 뼈아픈 기억과 피폐해진 삶을 그리고 있다.

2013년 제1회 제주4·3평화문학상 소설부문의 당선작 구소은의 <검은 모래>가 있다. 제주 우도와 일본 화산섬 미야케지마의 검은 모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녀 가족 4대의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우도에서 태어난 해녀와 그 가족이 일본으로 물질하러갔다가 정착한 뒤 겪게 되는 서사적 삶의 이야기다. 해녀로서의 운명과 신산한 삶, 재일 조선인의 슬픔, 분단 상황의 이념적 갈등 등 100여년을 아우르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작가는 소설을 쓰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제주해녀의 삶을 다룬 논문부터 해녀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으며, 하루 종일 제주해녀들을 따라다니며 물질하는 것을 지켜본 적도 있었다고 한다.

2014년 제주해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과 매그넘 포토(MAGNUM PHOTOS)의 흑백사진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세계적인 보도사진 작가 그룹 매그넘의 대표 작가 데이비드 알란 하비(David Alan Harvey)는 성산, 우도, 종달, 하도 등 제주 곳곳 해녀가 있는 곳을 찾아가 강인함과 소박함, 외로움과 친밀감, 웃음과 침묵 등 해녀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정서를 앵글 안에 담아 전 세계인이 제주해녀를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²²⁾.

이들 제주해녀와 그 문화를 활용한 기존의 문화콘텐츠 사례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지금까지 촬영된 그의 작품들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온라인 저널 PROOF(<http://proof.nationalgeographic.com/>)에 소개되고 있다.

<표 3>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사례

▷ 영화

영화명	주요 내용
계춘할망	제작 : 2015 / 감독 : 창감독 어릴 적 사고로 실종된 손녀가 10년 만에 할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주인공인 영화배우 윤여정씨는 제주도에서 평생 '해녀'로 살아온, 억척스러운 할머니 '계춘'역을 맡았다
해녀	제작 : 1964 / 감독 : 박영환 해녀 자매가 있었다. 육지를 동경하던 그들 자매 중의 언니가 육지 사나이의 유혹을 받아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녀는 죽을 고생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때마침 동생도 육지의 한 사나이를 따라 물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니는 동생을 설득하여 맹목에 가까운 육지에서의 어리석은 꿈을 깨워 준다.(출연 : 최은희, 박노식, 최지희)
물숨	제작 : 2015 / 감독 : 교회영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바다의 '물건'을 채취할 때 자신의 숨 만큼 물질을 해야 한다. 자칫 욕심을 내어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다의 법칙이다. 그래서 '물숨'을 조심해야 하고 욕망을 조절하며 바다와 함께 늙어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숨비소리	제작 : 2012/ 감독 : 배병건 해녀였던 할머니가 도시의 단단한 바위처럼 무미건조한 생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젊은 시절엔 바다의 은빛갈치 마냥 자유로웠던 여성이었기에 다시, 그 시절의 자아를 찾아가듯 마음의 고향인 바다로 길을 떠난다. '숨비소리'가 그 길을 안내한다.
인어공주	제작 : 2004/ 감독 : 박홍식 전도연, 박해일, 고두심 출연. 해녀인 딸이 엄마의 스무 살 해녀시절의 첫사랑을 물질하는 바다를 배경으로 감성적으로 풀어낸 작품. 억척스러운 해녀 출신 엄마에게도 인어공주와 같은 청순한 시절이 있었음을 표현했다.

<p>해녀 (다큐)</p>	<p>제작 : 2013 / 감독 : 케빈 사비스키 해녀는 수 세기 동안 스쿠버 장비의 도움 없이 해산물을 채집해 온 제주도 여성 잠수부를 일컫는 말이다. 이 짧은 다큐멘터리는 현재까지도 왕성히 물질을 하는 82세 박추화 할머니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녀의 일상 및 과거는 19세기부터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한국의 독특한 모계 중심적 문화를 나타낸다.</p>
<p>그림 그리는 해녀 (다큐)</p>	<p>제작 : 2014 / 감독 : 함주현 13살 때 친구들과 바다에서 헤엄치며 놀다보니 해녀가 되었다는 80살의 현충능 해녀, 첫사랑을 노년에도 기억하는 해녀, 해녀 일을 부끄러워했던 해녀 그리고 해녀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늙어가는 해녀 등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은퇴해녀들이 있다. 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려 그림수업을 하는 송연옥 미술교사는 은퇴해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와 해녀의 삶과 일상 등, 차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늙은 해녀의 그림으로 탄생하게 된다.</p>

▷ 드라마

드라마	내용
맨도롱 또똔	방연연도 : 2015 / MBC 주인공 강소라가 예비 해녀로 변신해 등장했다. 젊은 여성이 '해녀'가 되기 위해 해녀학교에 입학하고 해녀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 그려졌다.
탐라는 도다	방연연도 : 2009 / MBC

▷ 광고

업체	내용
피자배달 전문업체인 도미노피자	2015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해녀'라는 영상에서 해녀들은 싱싱한 해산물을 잡아 올리는 장면을 연기했다.

▷ 음악

뚜럼 브라더스	2015	노래 : 뚜럼브라더스 / 발매집 : 5집 ▲제주해녀블루스 ▲어멍 블루스 ▲해녀아리랑 등 11곡 수록
해녀 이름을 잇다	2014	국내 첫 해녀 헌정 음악앨범으로서 가수 정훈희, 강아솔, 한소현, 윤희석, 정성하, 한동준 등이 '해녀의 꿈', '해녀와 바다', '그녀의 바다', '숨비소리', 'Sea of Love', '바다의 노래' 등의 곡을 제주 해녀들을 위해 노래하는 앨범을 제작했다.

▷ 뮤지컬 및 공연

해녀별곡(제주MBC)	서귀포시 예술의전당/2014.12.11
어명의 바다	2014.12.17 ~ 12.18 /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대극장) 제작 : 림-에이엠씨(Lim-AMC) (대표 서정림)
키스 더 오페라마 (Kiss the OPERAMA)	예술총감독 :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 정경 소장 일시 : 2015. 12. 29~31일/ 상암동 JTBC 빌딩 디지털공연장
숨비소리	극단 고리 / 공연일시 2015. 2. 11. /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
창작극<숨비소리>	서울시극단(단장 김혜련) / 2015. 3. 27.~4. 12. / M씨어터

▷ 캐릭터

꼬마해녀 몽니, 소중이	(주)아트 피큐
--------------	----------

▷ 전시회

김형선 해녀사진전	2016. 4. 5-5. 7 프랑스 남부 틀루즈 페스티벌
준초이 사진전 '바다가 된 어명, 해녀'	2015.4.13-17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김형선 해녀사진전	2015.3.11-4.10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 출판물(소설 및 동화, 사진집)

소설 및 동화	제주해녀 간난이	현기영	2015
	애기해녀 옥랑이, 미역 따러 독도 가요!	허영선	2015
	우도의 꼬마해녀	최은순	2014
	해녀	권무일	2012
사진집	사진집 <우도 - 해녀>	고성미	2015
	해녀	이성은	2007
	해녀와 나	준초이	2015
	제주해녀	데이비드 알란 하비	2015
	Moon Tides (Jeju Island Grannies of the Sea)	브렌다 백선우	2011

3. 일본의 아마

일본의 아마는 제주해녀처럼 산소공급장치 없이 무호흡으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여성이다²³⁾.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나잠 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주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해녀’에 해당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마’는 단순히 나잠어업을 하는 여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남자도 그 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잠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あま)라고 부르며, 그 표기를 상황에 따라 ‘海女·海士·海人·蜃人’등 여러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²⁴⁾.

일본 학계는 3,000년 전 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 시라하마(白浜) 유적에서 다량의 전복 껍질과 사슴뿔로 만든 빗창(채취 도구)이 출토돼 선사시대부터 해녀

23) 일본에서는 남성 무호흡 잠수어업자를 한자로 ‘海士’라고 쓰고, 여성 무호흡 잠수어업자인 ‘海女’와 마찬가지로 ‘海士’를 아마라고 읽는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녀와 비교해서 여성인 아마(海女)에 한정하여 ‘아마’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24) 김선기 (2010), 제주 ‘해녀’와 일본 ‘아마’의 호칭 형성과정 비교, 외국어연구, 제24권, 174쪽.

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왕실 법도인 엔기시키(延喜式·927년)에는 “시마국에 해산물을 진상하는 가즈키메(潛女)는 30명이다”라고 기록하는 등 8세기에 잠녀(潛女)라는 글자가 문헌에 등장하였다. 고대 헤이안(平安)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녀들은 일본 3대 신궁(神宮)의 하나인 미에현(三重縣)에 있는 이세신궁에 전복 등 해산물을 진상해왔다²⁵⁾.

기계 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고 맨 몸으로 바다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여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하고 있다. 물질 작업을 통해 생겨난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문화유산-의복·도구·신앙·민요·놀이 등-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대감이 강하고, 강인한 생명력과 자존감은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의 공통적 특징이다.

일본은 2014년 1월말 아마 문화를 미에현(三重縣) 무형민속문화재로 등재하였다. 토바해녀보존회·시마해녀보존회를 보유·전승 단체로 봤으며 작업 전·후의 물질기술과 도구, 신앙, 축제 등의 해녀 문화를 문화재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때 6,000명이 넘었던 일본 아마는 지금 1,000여명 정도로 줄었고 대부분의 아마 중 절반이 6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제주해녀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해녀 ‘아마’를 주제로 일본에서 신드롬을 몰고 온 NHK 드라마 <아마짱>의 상업적 성공이 아마와 아마 문화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일부이기는 하지만 젊은 아마가 양성되고 있다.

제주해녀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이 늦은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아마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전히 제주해녀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5-27일 일본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미에현(三重縣)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정상들이 참석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惠) 여사는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과 함께 이소기 차

25) 제주신보, “(9)일본 해녀 ‘아마(海女)’의 잠수문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7193>>, 검색일: 2016.6.1

림의 해녀 85명과의 만남을 가졌다²⁶⁾. 이를 통해 일본은 G7 정상회의라고 하는 세계적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 아마를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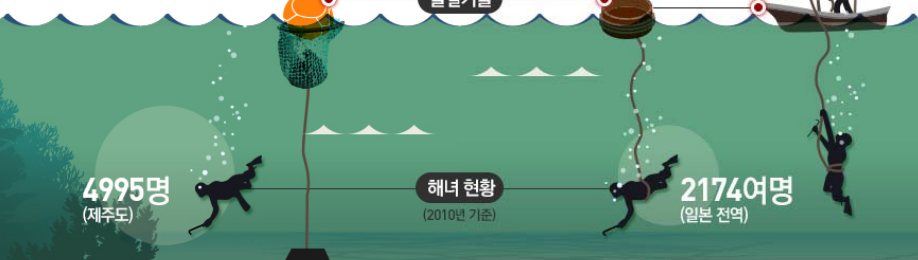
26) 毎日新聞, “伊勢志摩サミット 開幕 日本の自然、心に触れ 首脳夫人ら海女と交流”,
<<http://mainichi.jp/articles/20160527/ddm/041/010/150000c>>, 검색일 : 2016.6.2.



제주해녀 VS. 일본 아마(海女)

물옷 ▶ 물옷의 하의인 '물소중이'는 어깨끈이 한쪽만 달린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과 흡사하다. 물적삼은 덧입는 해녀복으로 주로 늦가을부터 봄까지 보편적으로 착용했다. 물옷을 언제부터 입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에 물소중이와 같은 옷을 입고 물질하는 모습이 묘사된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전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소기 이소기(해녀복)는 이소셔츠와 허반신을 두르는 속치마인 이소나카네를 입는다. 이소나카네는 무명수건 2포를 사용하여 위쪽 아래쪽에 끈을 달아서 묶는다. 일본해녀가 하얀 이소기(해녀복)를 입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시대 중반(1900년쯤)부터 한국의 해역을 넘나들면서 현지 해녀들의 풍습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제주해녀의 역사

용두암 근처에서 물질하는 해녀 이행상, <탐라순력도> 명단번호 1702년

물질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섬라(제주)에서 아명주(진주)를 전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629년 이경의 <제주풍토기>에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출가해녀 진출 지역 자료: 제주도세요령(1937년)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어민들의 제주어징 침탈로 해산물 채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타 지역으로 출가물질을 가는 해녀 수가 늘어났다고 되었다. 출가해녀들은 한반도 연안 곳곳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일대의 바다에서 물질을 하였다.

자료출처 | 제주해녀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일본 미에현 토비시 바다 박물관

<그림 1>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의 비교, 조선닷컴,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1/2013111100744.html?Dep0=twitter>, 검색일 : 2016.6.1.

1) 아마 서밋(あま Summit)

2011년 10월 30일 일본 미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에서 열린 ‘해녀 축제’는 지금까지의 아마 대집합에서 ‘아마 서밋 2011’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18개현에 흩어져있던 아마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아마 서밋(あま Summit)는 아마에 대한 존중과 보존을 위한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주체로서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

제주의 유네스코 등재 작업에 자극을 받아 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 바다박물관을 중심으로 아마에 대한 관심과 관련 행사를 시작하였던 것이 기초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다시 국가 전체로 확대되었다. 2008년 9월 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에서 한·일 해녀 교류회가 열렸고 2009년부터는 일본 열도 아마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포럼 성격의 대집합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일본의 8개 현 지사들이 모여 만든 ‘아마보존진흥회의’가 설립되었다. 아마들을 주축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지역 어업·관광·상공단체가 의기투합하였고, 아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마 문화를 테마로 한 학생교류 사업 등 전승 및 전파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15년 11월 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에서 열린 제6회 아마 서밋에서는 일본 13개 지역은 물론 부산의 해녀를 포함한 220명이 만나 서로의 현황과 과제, 교류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행사에는 일본에서 3번째로 해녀가 많은 야마구치현 출신인 아베(安倍) 총리가 참석한 것은 물론 그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행사장을 지키고 있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일본 아마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²⁷⁾.

2) 바다박물관

일본 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에 있는 바다박물관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27) 제주신문, “제주해녀와 해녀문화 명백히 달라”, <<http://www.jejuex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38>>, 검색일 : 2016.6.1.

사람들 즉, 어부와 해녀 등 어촌 사람들이 바다와 더불어 살아 온 과거와 현재, 바다의 미래를 만나게 하는 『바다와 인간』이라는 개념의 박물관이다. 바다박물관에서는 5만 8천점에 이르는 어로작업 도구와 해녀 관련 자료 및 바다와 인간의 관계, 물고기, 바다환경문제 등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구성하였고 특히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인기 높은 수학여행지로 알려졌다²⁸⁾.

3) 오오사츠 해녀문화자료관(相差海女文化資料館)

오오사츠 해녀문화자료관(相差海女文化資料館)은 바다박물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해녀와 관련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오오사츠 해녀문화자료관(相差海女文化資料館)을 방문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인근의 오오사츠 거리 곳곳에서 해녀들의 흔적과 역사적 사실들을 만나게 된다. 해녀의집 체험프로그램 ‘오오사츠 해녀의 집 부뚜막’은 해녀들이 직접 물질 이야기와 바다이야기 등을 방문객들에게 들려주고 해녀들이 직접 만든 해산물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오오사츠 관광협회가 운영하며 지역 해녀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협의를 한다²⁹⁾.

4) 아마 마쓰리 - 시라하마 해녀축제(白浜海女まつり)

일본의 보소반도(房總半島)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6,000명의 작은 해안 마을 시라하마(白浜). 이곳은 유채꽃이 유명해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종류만도 모두 35종. 특히 금잔화 생산량은 일본 제일이다. 시라하마는 매년 두 개의 축제를 여는데 하나는 1월과 3월 사이에 열리는 꽃 축제이고, 다른 하나는 7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녀축제(あままつり)다. 7월 20일은 ‘바다의 날’로 일본에서는 공식 휴일이다. 시라하마의 해녀축제는 2015년으로 51회를 맞는 유서 깊은 지역축제로 시작한 지역의 관광협회 임원들이 축제를 이끌었

28) 海の博物館 홈페이지 참조, <<http://www.umihaku.com/>>, 검색일 : 2016.6.1.

29) 相差海女文化資料館 홈페이지 참조, <<http://www.oosatsu.net/midokoro/ama/>>, 검색일 : 2016.6.1.

지만 지금은 민간주도의 형태인 지역주민들과 지역사업자 단체가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해녀축제가 열리는 곳은 잔디밭 광장인 남방총국정공원(南房總國定公園)이다. 작은 포구를 끼고 있는 곳으로 잔디밭 한가운데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득 메운 약 2만여명의 사람들은 유카타(기모노와 비슷한 간단한 복장)를 입은 사람들과 해수욕을 하러 온 가족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마을 주민들이다.

행사내용은 전통 민요가락의 장단에 맞춰 해녀 춤을 배우거나 해녀들이 바다물 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며 횃불 행진을 하는 것이다.

해녀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순간이다. 바다기슭에 환하게 피워놓은 불을 향해 횃불을 손에 들은 해녀들은 음악에 맞춰 원을 그리거나 몸을 움직이며 행진한다. 그 모습은 그곳에 운집했던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횃불을 들고 밤바다를 수영하는 것은 물질하러 바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해녀를 찾아 나섰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 지역 해녀들은 약 100명이지만 대부분 고령이다. 이 지역 역시 더 이상 해녀가 되려고 하는 젊은 여자들이 없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시라하마의 축제는 마을 인구보다도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보러 오는 축제임에도 오히려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로 진행된다. 별도의 큰 공간에서 기획된 이벤트로 치르고 있는 제주의 축제들과 달리, 시라하마 해녀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펼쳐내고 있는 데서 오는 편안함 때문일 것이다.

5) 아마짱

일본해녀‘아마’를 주제로 일본에서 신드롬을 몰고 온 드라마 <아마짱>은 2013년도 상반기에 NHK에서 제작되어, 종합 텔레비전과 BS 프리미엄에서 방송된 연속 TV 소설의 제88시리즈 작품이다. 도쿄의 여고생이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어촌의 시골마을에서 외할머니에 이어 해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특히 주인공 아키의 어머니는 가업인 해녀 대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1980년대 중반 도쿄로 떠났지만 좌절했고 아키는 오히려 해녀에 매력을 느껴 스스로 해녀가

된다는 내용으로 전통적 일본 어촌마을의 문화와 커뮤니티를 밝게 부각시킨 드라마이다.

일본이 <아마짱>을 제작한 시기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이다.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였고, 눈에 띈 것이 바로 아마였다. <아마짱>은 일본의 해녀 아나가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아마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손녀에서 할머니까지의 3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 트렌디한 구성 등 극작가 겸 영화감독인 구도 간쿠로 (宮藤官九郎)의 탄탄한 대본에 아이들 (AKB48멤버)임에도 탄탄한 연기를 보여준 주인공 노넨 레나(能年玲奈)와 고이즈미 교코(小泉今日子), 미야모토 노부코(宮本信子) 등 유명 배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어우러지면서 대히트를 기록하였다.³⁰⁾ 거기다가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덕분에 ‘아마노믹스’³¹⁾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드라마의 무대이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이와테현(岩手縣)은 드라마의 인기 속에 ‘부활의 기적’을 실현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대지진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이와테현(岩手縣)은 드라마 방영 이후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4월 말부터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이와테현(岩手縣)을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00만여 명에 달하였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와테현(岩手縣) 구지시(久慈市)는 관광객이 두 배로 늘었다. 해녀들이 직접 탄 성게를 바닷가에서 맛보고, 객차가 1량밖에 없는 미니 기차 산리쿠리아스선(三陸リアス線)에 탑승해 해녀가 직접 판매하는 성게·전복 도시락을 사먹는 등 드라마의 내용을 그대로 체험하는 ‘아마짱 투어’라는 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³²⁾.

아울러, 드라마의 DVD, OST CD, 아마짱의 80's HITS CD, 시나리오집, 오피셜

30) 드라마 <아마짱>은 2013년 도쿄 드라마어워드에서 연속 드라마 부문의 최고상을 수상했고, 개인 상에서는 주연 여배우상의 노넨 레나를 비롯해, 조연 여배우상 고이즈미 교코, 각본상은 구도 간쿠로가 상을 받음으로써 총 7관왕을 획득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시장동향, “도쿄드라마어워드2013, NHK 「아마짱」 7관왕 기록”,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53/1820868.do?menuNo=200911>>, 검색일 : 201661.

31) 아마노믹스는 2013년 4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아마짱>의 폭발적인 인기가 불러온 경제효과를 일컫는 신조어로 일일 아침드라마로서는 이례적으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오픈닝 타이틀 주제가가 음원 다운로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를 낳았다.

32) 문화일보, “이해보다 아마짱... 日 ‘아마노믹스 열풍’”, <<http://www.mhwa.com/news/view.html?no=20130613010514305600>>, 검색일 : 201654

북 등 관련 서적 등 드라마 <아마짱>의 관련 상품들도 제작·판매되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별 모양의 세만과 격자 모양의 도만 등 아마들이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부적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아마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여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화를 피하게 한다는 의미가 부여돼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예부터 아마들이 바다 작업에 앞서 들렀다는 신메이 신사(神明神社)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노구치 미즈키(野口みずき)의 선전과 연결되며 ‘여성을 지키는 공간’으로 홍보되었다. 열쇠고리 등 장신구 외에도 아마 마을 곳곳에서 아마의 이미지가 이정표이자 상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른바 ‘아마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잘 만들고, 잘 활용한 드라마가 하나가 온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는 물론이고 작게는 지역경제를 크게는 국가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해녀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아마짱>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명맥이 끊겨가는 해녀문화를 계승하려는 움직임까지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마짱>을 계기로 고령화 영향으로 격감하는 해녀의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남부 규슈(九州)의 나가사키현(長崎縣) 이키시(壹岐市)에서는 해녀공모를 실시한 결과 20대의 신입해녀가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에현(三重縣)은 해녀보존회를 설치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본 아마를 문학작품과 영화로 널리 알린 사람은 일본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다. 그는 1953년 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 가미시마(神島)에 머물며 소설 <시오사이>(潮騒·파도소리)를 집필하였다. 이 소설은 홀어머니와 동생을 뒷바라지 하는 18살의 정직한 어부와 부유한 선주의 딸이자 아마로 살아가는 소녀의 애잔한 순애보를 그렸다. 섬 주민들의 질시와 가족의 반대, 목숨 건 조업 등 난관을 극복한 이들은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소설은 1954년 영화로 제작된 후 1985년까지 다섯 번이나 영화로 리메이크 돼 아마들의 삶을 생생히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³⁾.

33) 제주신보, “(10) 일본 아마(海女) 유네스코 등재 다각도 노력”,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766>>, 검색일: 201661

4. 제주해녀의 생태적·정서적 삶과 공동체를 살린 문화콘텐츠

제주도 최초로 해녀를 대상으로 집단적 생애사 작업은 65세 이상의 전·현직 해녀 102명을 조사한 결과 2013년에 나온 『숨비질 배왕 늬 주지 아녀』(물질 배워서 낚 주지 앓는다)라는 보고서이다.

이 조사는 과거에 물질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전·현직 해녀들의 고령화로 인해 그들의 경험담을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실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이루어진 것이다. 8개월에 걸쳐 전도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 총 102명의 해녀들의 육성을 담을 수 있었고, 조사에 응한 해녀들의 평균연령은 77세였다.

유·무형 자산 중 동일 직업군의 생애사를 대규모로 자료화 한 사례가 없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주 해녀의 전통과 실상을 파악하고 해녀문화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심화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가 해녀 개인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해녀문화를 통한 제주 4·3, 경제사, 여성사, 해양 자원 변천사 등의 조사에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중·장기 해녀생애조사 계획 수립과 타 지역(강원도·일본 등)에 정착한 해녀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다³⁴⁾.

1. 거북이영 놀던 바당 (고순이, 78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장 바당은 거북이가 사는 곳이다. 물에 들면 거북이와 노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거북이가 새끼를 낳아 아기거북이 5마리를 안고 놀았다. 어미 거북이도 고씨가 아기거북이와 노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마치 아기거북이들이 고씨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2. 난 고향이 어수다, 바다가 고향이주 (박양숙, 69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어머니가 출가물질 가는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없다’는 것, 태생의

34) 제민일보, “제주해녀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http://www.je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998>>, 검색일 : 2016.5.4.

배경은 운명적으로 상군 해녀가 되게 했다. 3남 5녀 중 장녀로 동생들을 돌보며 15세부터 물질을 시작했다 18세 때 부터 육지 바다로 물질 갔는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장녀이기 때문에 가족들 선물 사다보면 번 돈을 거의 다 써야했다.”

“물질 할 때 돌고래가 자주 보인다. 고래들은 해녀들을 둘러싸기도 한다. 그러면 해녀들은 배알로, 배알로 하면 고래들은 배를 보이며 장난을 친다.”

“55년간 해녀 일을 했는데 변한 것은 불턱 대신 탈의장이 생긴 것,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다가 죽었다는 것 바다에 몸과 감태가 없고 하얗게 변해서 죽어가는 것이 슬프다.”

3. 해신당 할망을 잘 모셔야 우리가 살아 (홍경자, 64세,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물질은 바다 속에서 눈을 떠야하고 숨은 참아야 하는 아주 힘든 작업이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해신당 할망에게 목숨을 잘 부탁한다고 잘 기원해야 한다.”

4. 생명 걸어야 하는 물질 딸은 안 시켜, 그래도 바다엔 자유가 있다 (박인출, 75세, 제주시 화북동)

“해녀가 전망이 있고 없고는 물 속 일이라 모른다. 바다에 물건이 많아지면 전망이 있는 거고 물건이 없으면 전망이 없는 것이다. 또 다시 물질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물질 일은 생명 걸고 하는 거라서 칠성판을 등에 지고 열길 물속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에서 좋은 건 돈을 버는 거고, 바다에 가면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은 더 할 것이다.”

5. 힘든 물질생활, 노래로 한풀이 했다 (윤삼례, 86세, 제주시 구좌읍 북촌리)

“제주여자 중 또 북촌여자 중 물질 안한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제주여자들 얼마나 불쌍하여? 막 물에 들당 물에 못 들면 동산 위에 테왁 두드리며 노래로 한풀이를 했다. 하지만 제주여자들은 육지여자들과 달리 자유가 있다. 돈을 버니 자유가 있다, 남에게 빚내며 살려고는 안 한다.”

6. 살젠 허민 벨벨 수단 다 잇나 (이남연, 79세,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생 나를 지켜준 것은 바다였다. 지금 살고 있는 넓은 2층 집도, 많은 밭도

다 자신이 물질한 바다에서 온 것이다. 평생 물질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다시 태어나도 물질을 할 것이다.”

7. 하루에 두, 세 번 물에 드는 것은 보통 (권영애, 85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제주도 동쪽 끝 종달리에서 태어나 13세부터 물질을 시작하였다. 13세 때 어머니가 딸들을 위해 테왁과 구덕, 망사리를 만들어 주었다. 처음엔 얕은 곳에서 ‘숨비기’ 시작하다 차츰 깊은 바다 속까지 들어가는 것을 배우며 물질의 재미를 느꼈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혼이 빠질 정도로, 물질하러 못가는 날이면 가고 싶어 미칠 정도였다.”

8. 소섬 전체가 다 내가 물질하던 바당이라 (양정심, 89세,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지금도 건강하게 물질하면서 살고 있다. 바다에 들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아주 좋다. 고기도 쏘고, 보말도 잡고. 이제라도 바당에 가문 뭐라도 잡아 오지. 밭일보다는 바당이 훨씬 좋다.”

9. 요즘 사람들은 물질 좋은 거 몰라 (한경여, 85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벗들이 좋아 같이 다녔는데 그 벗들이 이젠 다들 죽었다. 옥순이, 경순이, 옥봉이, 물질도 너무 잘 했었다. 바다에 다니며 요왕제도 하고 마을 본향당에도 다녔다. ... 고동 생복을 잡아 팔고, 벗들과 우스운 말 하면서 살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좋다. 바다도 좋곡, 벗도 좋곡. 하지만 요즘사람들은 안 배운다. 며느리가 하고는 있지만 손녀딸도 안 배운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 좋은 걸 모르는 모양이다.”

10. 돌이켜 보면 물질 만큼 신나는 직업은 없는 듯하다 (현희옥, 69세, 서귀포시 표선읍 표선리)

“물건은 잡지 못하고 피곤하기만 할 때는 물질을 그만두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새 55년 물질 생애를 지속해 와서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고무옷이 생겨나고 돋보기 수경과 오리발이 생겨나는 등 물질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돌이켜 보면 물질 만큼 신나는 직업은 없는 듯하다. 다른 일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서둘러야 하지만 물질은 해가 뜬 후 시작해도 된다. 몸은 지치지 만 몸이 깨끗하고 운동이 되어서 좋다. 여자의 직업으로 이만한 일자리가 또 어

다 있을까 싶다. 물질 환경이 나아지고 작업장이 갖춰지면 젊은 여성들이 도전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해녀들은 고된 바다에서의 물질 노동 속에서도 바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긍정적인 사고를 보이고 있다. 출가하는 배 위에서 태어나 고향이 따로 없고 바다가 곧 고향이다(박양숙 해녀), 집도 사고 받고 사고 평생 자신을 지켜준 바다가기 때문에 평생 물질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다시 태어나도 물질을 할 것이고 한다(이남연 해녀). 심지어 물질의 재미 때문에 혼이 빠질 정도이고 물질하러 못가는 날이면 가고 싶어 미칠 정도라고 하니(권영해 해녀), 제주해녀의 바다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은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을 거스르고 하지 않고 해신당 할당에게 목숨을 의지하는 등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적 삶을 살고 있다(홍신자 해녀). 오로지 자신의 맨몸에 의지해 물질할 때에만 해녀들은 가정 내 가부장적 질서와 권위, 가사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벗들과 우스운 말하면서 살았던 그 좋았던 기억처럼(한경여 해녀), 맨몸과 맨몸을 서로의 닻줄을 묶고 함께 물질하는 동료해녀와 공동체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물질이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고된 노동이지만 이를 숙명처럼 받아 안고, 한편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삶에 대한 긍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물질이라 딸에게는 안 시킨다고 하면서도 바다에 가면 자유가 있어 앞으로 5년은 더 할 것이라고 하거나(박인출 해녀), 힘든 물질생활을 테왁 두드리며 노래로 한풀이를 하고는 했지만, 육지여자들과 달리 돈을 버니 자유가 있다고 한다(윤삼례 해녀). 며느리나 손녀딸도 그 좋은 물질을 왜 안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거나(한경여 해녀), 물질 만큼 신나는 직업은 없는 듯하니 젊은 여성들이 도전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말한다(현희옥 해녀). 생사를 넘나드는 삶의 터전은 해녀들에게 때론 거북이(고순이 해녀)와 때론 돌고래(박양숙 해녀)와 장난치며 노는 즐거움이 노동에서 오는 힘듦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처럼 제주해녀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구술한 생애사 조사보고서를 통해 본 제주해녀들의 삶은 어려운 생활이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자긍심, 바다라는 자연과 교감하는 감수성, 물 밖 세상은 힘들었지만 물속에서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세계가 있다는 자유로움, 돈을 벌어 자식을 키우고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경제생산자로서의 자부심 등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실시된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보고서’상의 사례를 선택해 제주해녀의 생태적·정서적 삶과 공동체를 살린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 - 제주해녀 밥상

해녀노래에 해녀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 있듯, 밥상 역시 해녀의 삶과 꿈이 담겨 있다. 해녀의 삶의 터전인 바다 밭엔 해산물이 풍부하다.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하여 잡은 해산물로 해녀들은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자식들 옷도 해 입히고 학교도 보내지만 정작 노동에 바쁜 해녀들의 밥상은 소박하다.

제주해녀는 물때가 되면 물질을 하지만 물에 들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밭일을 해야 한다. 해녀에게는 바다밭과 농사짓는 밭이 공존한다. 해녀밥상 역시 바다 텃밭과 물 텃밭이 공존한다. 해녀들의 밥상은 소박하지만 갖 따운 식재료이기에 생명력이 강한 밥상이다. 또한 밥상머리에는 동료 해녀 또는 이웃들과 함께 하기에 나눔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해녀들이 즐겨먹는 방식의 ‘낭푼 밥상’도 건강 식단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해녀들은 바다일과 밭일을 동시에 하느라 늘 바쁘기 때문에 거의 매 끼니를 커다란 양푼에 밥과 야채 그리고 간단한 양념을 넣고 밥을 비벼먹는 경우가 많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등의 영양소를 한 그릇에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이다. 조리법도 단순하고 양념도 최소량만 해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다. 낭푼 밥상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야채, 미역과 같은 해산물, 젓갈류의 발효식품이 곁들여져 소화를 돕는다.

특히 해녀들의 ‘바다 밭농사’ 활동은 자연 안에서 공존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온 만큼 최근에 세계적으로 추구되는 지속가능한 생태주의적 삶과 일맥상통한다. 무궁무진한 생태주의적 학습자료를 갖고 있으며 각박한 현대인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많은 잠재력을 가진 해녀문화는 후기 근대적 고부가가치 경제생산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인류사회’가 추구해갈 미래의 가치를 체험하게

할 귀한 문화적 전통이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가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듯, 해녀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원리가 새로운 문화와 교육의 바람을 일으킬 때 인류사회는 보다 평화롭고 공존적이 될 것이며, 그런 고차원적 문화의 상품화를 통해 제주의 경제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³⁵⁾.

이처럼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삶이 담긴 해녀밥상과 낭푼 밥상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현대인은 물론 세계인에게도 맛과 건강의 균형을 잘 맞춘 ‘한류음식’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건강 식단이자 문화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비빔밥은 대한항공은 기내식으로 개발되어 1998년 국제항공기내외식협회인 IFCA(International Flight Catering Association)로부터 업계 최고 권위의 ‘머큐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부터는 한류문화의 음식전도사로 전 세계에 소개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 국제선의 경우 해녀스토리텔링이 있는 해녀밥상과 낭푼밥상을 기내식으로 개발·보급하면 자연스럽게 웰빙 푸드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를 앞 둔 제주해녀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014년 1월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문화관광포럼 주최로 개최된 ‘제주해녀의 삶과 밥상전’³⁶⁾은 소박한 제주해녀의 밥상을 오늘에 되살려낸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녀밥상 ‘해녀의 삶과 음식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생명의 음식’으로는 살짝 데친 해삼으로 만든 해삼 토렴, 전복죽, 고구마 밥, 소라 툇밥이 재현되었고, ‘사랑의 음식’으로는 보말(바닷고동)죽, 갱이(바닷게)죽, 둥둥조배기(메밀수제비) 등 죽과 제주전통의 수제비가 재현되었고, ‘나눔의 음식’으로는 낭푼(양푼)밥과 성계국이 재현되었다. 특히 ‘영혼의 음식’으로 해녀의 무사안녕과 어부의 풍어를 기원하는 신들을 위한 음식이야기와 함께 칠머리당영등굿 제상이 차려졌다. 이 날 해녀음식을 테마로 한 해녀 밥상이 처음으로 선보였지

35) 2011년 9월 제주 특별자치도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제주 해녀 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에서, 조현혜정 교수 블로그 <<http://chcharlabnet/tdonet.sl-2277&nichresearch.feminism>>, 검색일: 201661.

36)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문화관광포럼(대표 이선화 의원)은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제주도관광협회, (사)제주IT협회와 함께 2014년 1월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해녀의 삶과 밥상전’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음식을 통해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제주해녀의 삶과 밥상전’은 제주해녀의 삶과 정신을 문화관광차원의 작업으로 잇는 첫 번째 행사라서 그 의미가 크다.

만 차후로 도내 각 어촌계마다의 특색을 담은 해녀밥상 음식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녀들의 손맛이 담긴 다양한 해녀밥상의 메뉴 콘텐츠개발과 각 어촌계를 통해 해녀의 밥상 이야기를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이처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의 해녀음식이야기를 시리즈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향후의 과제를 참가한 해녀와 관객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 행사의 큰 수확이었다.

2) 여성의 정서적 공동체 - 여성주의적 거버넌스 구축

21세기 지식창조의 시대에 여성의 감성과 소통 능력 그리고 창조성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특히 제주해녀는 특색 있는 ‘물질’ 작업과 생태주의적 생활방식 그리고 강인한 집단적 여성 문화로 주목을 받아왔다. 자율성과 협업성, 어린 해녀를 위한 멘토링, 공정한 분배 방식과 생태주의적 공동 자원 관리, 활발한 소통과 잠수 곳 의례 등 해녀사회의 전통은 인류 생태 문화의 보물이자 후기 근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여성주의적 거버넌스의 표본이다. 특히 ‘아시아의 아마조네스’(the Amazons of Asia)³⁷⁾라는 여성 이미지는 제주도를 세계 여성들이 일생에 꼭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싶은 순례지로 만들어내면서 명실 공히 제주의 귀중한 유무형의 유산이 되어 왔다³⁸⁾.

여성의 힘의 증진과 권력에의 접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완전한 참여는 사회의 평등과 평화,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하다. 지난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여성회의(UN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는 세계인들에게 여성의 힘의 증진과 완전한 참여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해준 큰 계기였다. 베이징회의는 21세기를 향한 세계여성운동의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운동 전략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여성의 권한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37) 2014년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원자가 없어 명맥이 끊길 위기를 맞은 제주해녀를 조명한 적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강한 생활력을 가진 해녀가 제주의 상징이라며 ‘아시아의 아마조네스’라고 소개하였다. The New York Times, “Hardy Divers in Korea Strait, ‘Sea Women’ Are Dwindling”, <http://www.nytimes.com/2014/08/30/world/asia/hardy-divers-in-korea-strait-sea-women-are-dwindling.html?_r=0>, search : 4 May, 2016

38) 2011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제주 해녀 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에서, 조현희정 교수 블로그 <http://dchlab.net/?do=net.st-2277&nic=search_feminism>, 검색일: 201661.

빈곤, 교육,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의 12개 주요관심부문과 부문별 행동방안을 선정하였고 이는 각국이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베이징회의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동서의 갈등을 넘어 여성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과 역대 어느 회의보다 많은 여성대표들이 참석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 그리고 유례없이 많은 비정부기구대표들이 모여 열린 NGO회의가 상호보완의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회의였다. 무엇보다 이 회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여성운동이 남성에게 보호와 특혜를 호소하는 종전의 수동적 자세에서 여성의 권리행사를 선언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자리였다는 점이다. 여성이 더 이상 남성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보호적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등한 위치에 설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은 여성운동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베이징회의는 여성의 자력화(empowerment of women)를 선언하고 여성문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했다. 여성이 정치, 경제면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선언의 의미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고 남성들에 맡겨져 왔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힘과 참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되고 있다. 향후 제주해녀의 정서적 공동체를 계승·발전시켜 제주에서 유엔의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거나 기존 남성 중심의 각종 국제회의를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정서적 공동체 플랫폼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처럼, 여성의 섬이라 일컬어지는 제주에서 가칭 ‘세계여성포럼’이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제주는 전 세계를 향해 ‘강인한 여성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각인시킨 바 있다. 2014년 5월 제주에서는 전 세계 여성 권한강화를 위한 전문직여성세계연맹 제28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는 “권한 강화된 여성이 비즈니스를 선도한다 (Empowered Women Leading Business!)”라는 주제로 BPW(Business & Professional Women) 세계연맹³⁹⁾이 주최하고 BPW 한국연맹이 주관하며 여성가

족부와 제주도, KBS가 후원으로 OECD, 세계은행, 유엔, 국제무역센터, 영연방기업회의 등 전 세계 유수 기관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 및 전 현직 장관, 왕족 및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⁴⁰).

이번 총회는 한국의 첫 여성 CEO라 할 수 있는 의녀 김만덕을 총회의 상징으로 선택하였으며, 또한 제주해녀를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세계전문직여성들에게 부각시키며 제주해녀의 정신을 이 시대와 연결시키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녀공동체문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귀중한 해녀공동체문화 전통 등의 보존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오는 8월 24-26일까지 세계 속 한민족여성의 권익향상 및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마련하는 ‘2016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행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 ‘전통시대, 이미 21세기를 살아낸 제주해녀’라는 주제의 특별 세션이 포함되어 국내외 여성 500여명에게 제주해녀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⁴¹).

39) BPW는 전 세계 100여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 중의 하나이다. 1930년 레나 매디슨 필립스(Lena Madasin Phillips) 박사에 의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립되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BPW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직종의 기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념이나 종족, 언어 혹은 종교에 치우침 없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설립, 1975년 여성의 해 선포, 1976년~1985년 여성의 해 10년,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제1회 세계여성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다른 국제 여성단체 및 유엔기구들과 세계 전 지역에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문직여성한국연맹 홈페이지, “세계연맹소개”, <<http://www.bpw.or.kr/>>, 검색일 : 2016.6.1.

40) 한라일보, “전문직여성세계연맹 제주총회 23일 개막”,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9957401463063073>>, 검색일 : 2016.6.1.

41) 정책브리핑,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8.24~8.2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939>>, 검색일 : 2016.6.1.

IV.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주변의 그저 익숙한 존재였던 것이 지금은 엄연히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인식되고, 다시 여성성과 특유의 정체성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가시화하는 것과 별도로 제주해녀와 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결음마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는 아직 변변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대한민국무형문화유산국가목록’에 제주해녀를 포함시키면서 해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키우려는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⁴²⁾.

제주도가 문화원형의 보고라는 장점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수년째 표방하고 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문화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제한적이다. 해녀와 관련된 제주도의 담당부서만 하더라도 해녀 관련 정책 대부분이 해양수산국에 집중되어 있다. 해녀를 문화콘텐츠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도 속도가 느리다. 2009년 해녀조례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녀문화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녀 문화콘텐츠나 글로벌 문화브랜딩의 업무는 문화적 감각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해양수산국이 아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이미 활성화되어한다. 관광의 기초가 지역 문화인 것이다.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라면 ‘박물관’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제대로 다듬어 상품으로 만들자고 한다면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구슬 서 말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아직까지는 해녀라는 뛰어난 재료를 가지고도 대표 상품을 못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돌하르방’의 뒤를 이을 대표적인 해녀 브랜드를 지금까지 선보이지 못한 것도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부족의 결과이다. 여전히 제주해녀와 그 문화는 물질 기술이나 ‘해녀노래’등에 치우쳐 있는데다

42) 제민일보, “유네스코 등재 총력..문화융성 활용 기회로”,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84>>, 검색일: 2016.3.22

‘물질시연’, ‘해녀 춤’ 등의 소극적 상품화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 자신들의 아마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 프랑스 르몽드지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 나갈 이벤트를 수시로 국가차원에서 기획하고 해외언론에 집중 보도되도록 노력하듯 제주 역시, 전 세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제주해녀의 존재와 그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 일본이 해녀를 지역민만이 아닌 온 국민적 관심과 대중적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해녀드라마 <아마짱>을 활용한 것처럼, 제주해녀를 소재로 하는 연극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바로 One Source를 Multi Use하게 활용할 줄 아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공을 위한 창의력의 발휘라고 생각한다(김미경, 2015: 118-119).

본 논문에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문화인 해녀와 해녀공동체를 보존·계승할 수 있도록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방안 및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주해녀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도 기반 강화

중앙정부와 제주도 모두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라는 당면과제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해녀와 공동체 문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입법·정책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다행히 2015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유네스코 협약 기준에 맞춰 무형문화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주해녀와 그 공동체문화가 ‘어로에 관한 전통지식’이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부문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하고 각종 진흥책을 마련해 전승 의욕과 전통문화

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계승 방식 등이 유네스코 협약의 기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담보할 수 있게 되어 문화콘텐츠로서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자료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주해녀문화진흥에 관한 제주도 문화정책의 부재와 전문성 부족은 해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조성과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주해녀 관련 자치조례가 해녀문화산업 진흥, 해녀박물관의 설치·운영 등 간접적이거나 해녀 개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제주해녀의 고령화, 높은 진입장벽, 고된 노동, 어족자원 감소 등에 따른 제주해녀 수의 감소를 해소하고 기존 해녀의 소득보장과 건강, 안전, 신규 해녀에 대한 교육비 및 일시적 정착지원 등 직접적 지원을 통해 제주해녀의 자존감 고취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조례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꼬마해녀 몽니’처럼 민간 차원의 작업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주해녀 문화콘텐츠 전담부서와 전문성 강화

세계적 관심을 보다 끌어낼 수 있는 해녀의 가치를 알리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글로벌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국내외 홍보 및 큰 그림의 정책을 제시해 제주해녀의 글로벌문화브랜드를 마케팅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해녀 문화의 세계화 등 제주해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해양수산국이 담당하고 있다. 해녀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해녀박물관의 관장직 또한 해양수산국 소속 계장이 맡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 업무도 학예연구사가 전담하다시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국은 2016년 해녀 진료비 지원 등 제주해녀의 건강보호와 소득향상 등을 위한 3개 분야 25개 사업에 1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⁴³⁾.

4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보도자료(2016.2.17), “도, 제주해녀 보호·육성 지원 본격 추진”,

해녀와 그 공동체문화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산업’과 ‘문화정책’등에 있어 균형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해양수산업이 문화보다는 수산 분야 전문이라는 점에서 해녀 유네스코 등재라는 사안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주체가 문화재청이고,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해녀문화를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 관광을 비롯한 문화시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부서에서 이를 전담해야 한다⁴⁴⁾.

3.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제주발전연구원의 신동일(2011)은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증대 방안”에서 사라져가는 제주해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전승하기 위해 해녀문화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해녀들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 해녀축제의 활성화(독립된 축제로 개최, 해녀의 날과 연동하여 하절기로 개최시기 조정 및 정례화, 국제적 축제로의 도약) △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해녀문화학교 운영 △ 해녀문화지킴이 양성 △ 차별화된 홍보전략(표적시장별 홍보전략, 매체별 홍보전략, 안내표지판의 선진화, 정기적 뉴스레터 제공, 자매결연 지역을 통한 홍보강화, 온라인 홍보의 다양화)과 해녀 소득증대 방안으로 △ 마을어장 휴식년제 실시 △ 자원관리채취선의 제한적 도입 △ (가칭) 해녀마שמ 브랜드 개발 및 육성 △ 해녀정보센터의 운영 △ 해녀 공연의 확대와 관광코스화, △ 관련 자료와 기념품화 △ 해녀조례의 전면 개정 △ 서포터즈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내 해녀 현황을 상기하면, 2015년 말 현재 총 4,377명 중 70세 이상이 2,340명으로 전체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주해녀의 고령화가 심각

<<http://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963465>>, 검색일 : 2016.6.1.

44) 제주신문, “제주해녀와 해녀문화 명백히 달라”, <<http://www.jejuex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38>>, 검색일 : 2016.6.1.

한 수준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물질을 천직으로 알고 택한 삶을 이어가는 해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해녀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제주해녀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다른 지원이 없다는 게 이를 잘 보여 준다⁴⁵⁾.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변화하면서 해조류, 소라, 전복, 해삼, 성게 등의 수확량이 매년 급감하여 제주해녀의 작업장인 바다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해녀의 대부분이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령층이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생산가능 인구 연령대(15-64세) 이후 연금 소득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한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 노후 대비가 미흡하다보니 은퇴할 수 없는 고령자 노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은 물론 평생 거친 일을 해 온 해녀들에게 ‘살 수 있는 노년의 시간’을 주기위해서라도 연금제도 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녀와 해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신규 해녀를 양성하고 물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녀물질은 직업으로서의 고된 노동, 불안정한 수익 그리고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다음 세대로의 대물림은 물론 직업군으로서의 정착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해녀의 자연적 감소에 대한 충원과 인위적 육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는 물론이고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훈련비, 교육훈련과정 생활비, 이주민을 위한 정착금 및 주거비, 어촌계 가입비 지원과 함께 이들이 실제 물질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

45)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한다. 특히 75세 이상 고용률은 19.2%로, 비교 가능한 24개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4.8%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터라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고령층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겨레, “살 수 없는 노년…7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6691.html?_fr=mt2>, 검색일 : 2016.6.3.

층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제주해녀의 자력화와 네트워크 구축

“Nothing about us, without us.”⁴⁶⁾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제주해녀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에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인 제주해녀를 배제하고 소수의 전문가와 공무원에게 맡겨둘 수 없다.

제주해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문제를 말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해녀와 해녀공동체가 사회적 주체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 되는 귀한 존재라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자력화(empowerment)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해녀의 공동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제주해녀 주도의 가칭‘세계해녀대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일본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들이 매년 한차례 총회를 통해 모여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해녀현황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는 물론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해녀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 제안과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해녀공동체의 우정과 화합의 축제가 가능할 것이다.

46)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우리와 관련된 것을 우리를 빼고 결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기본 정신으로 유엔은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입안과 이행에 있어서 장애인을 대신해 전문가와 정책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의 참여를 역설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논문은 그동안 제주해녀에 관한 각종 기록과 연구자료, 직접 대면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제주해녀의 삶과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해녀의 삶과 생활을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적인 가치로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생애사 연구를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해녀를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와 이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해녀의 삶과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미래세대까지 제주해녀의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는 그들만의 단순한 생업활동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려는 여성의 지혜이며 용기라는 점을 높이 존중하고, 문화인류학은 물론 역사와 여성학적 가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그 가치의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해녀문화의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한 해녀 당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적, 경제적 이익이 해녀당사자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해녀생애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제주해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인프라 확충 보다는 제주해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활용한 교육, 연구,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제주해녀의 정체성을 공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제주해녀들의 물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녀 육성과 함께 해녀문턱을 낮추는 어촌계의 정책 변화와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에 '제주해녀 브랜드'를 부여해 청정수산물과 해녀 스토리가 담긴 상품으로 판매하는 해녀상

품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해녀들의 작업환경을 위하여 연안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해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여성 어업군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나 사라져가는 직업군의 문화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는 인간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를 드높여야 할 때이다.

이런 모든 일의 핵심은 해녀들의 삶이다. 이 모든 활동과 작업은 ‘해녀들을 위한 해녀들의, 해녀들에 의한’ 자존감 있는 삶의 회복 활동이어야 한다⁴⁷⁾. 다시 말해 ‘해녀’와 ‘해녀문화’를 대상화하기보다는 해녀 스스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고, 만들어 온 삶과 문화를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치가 커질 수 있도록 지원 해주어야 한다.

해녀당사자들의 해녀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평생 직업인 ‘해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젊은 여성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에 이어 자랑스럽게 이어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제주해녀의 살아온 세월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된다. ‘불턱’에 오순도순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어린 해녀를 함께 키우고, 동네를 이끌어가는 논의를 나누던 시절, 적절하게 채집을 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던, 바다가 풍성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해녀들이 인류가 자손대대로 추구해갈 삶의 원리와 가치를 마련하는데 동참할 때 해녀업은 21세기에 다시 그 가치를 생성하면서 중요한 제주의 자원과 문화로 떠오를 것이다⁴⁸⁾.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Marie Steinem)이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녀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라. 만약 해녀들이 식당을 만들고 싶어 하면 식당을 만들고, 여관을 만들고 싶어 하면 여관을 만들어줘라. 그 속에서 그들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박물관 등을 통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직접 해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보존·계승해야 한다. 그들로부터 진정으로 배우고,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문화도 진정으로 보존·계승될 것이라고 본다.”⁴⁹⁾

47) 조한혜정 (2011), 해녀문화 세계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15쪽.

48) 위의 논문, 16쪽.

49) 제주도민일보, “세계인 끌려면 군사기지 없애라”, <<http://www.jejudn.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4>>, 검색

2. 제언

‘해녀 하나가 사라지면 제주도의 박물관이 하나가 사라지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주장현의 뼈아픈 고백처럼, 인류문화사에 남은 ‘바다의 장인’, ‘자연의 장인’, ‘생태의 장인’인 제주해녀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들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하루빨리 특단의 방법을 찾지 않고 이대로 두 손 놓고 있을 경우 우리세대에서 제주해녀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미래세대에 가서는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⁵⁰⁾.

최근 영국출신의 세계적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Jamie Oliver)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해녀를 만나 느꼈던 감동과 그들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 북에 올려 세계인들에게 제주해녀의 존재를 알렸다. 이주민인 서귀포 귀농귀촌협동조합의 안광희 대표는 해녀들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그림 그리는 해녀>를 제작해서 휴스턴국제영화제 등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서 잇따라 초청받으며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로 알리고 있다. 제주출신 고희영 감독의 <물숨>은 유럽 배급사 퍼스트핸드필름과 계약해 해외시장에서 ‘Breathing Under Water’라는 작품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해녀의 삶과 정신을 세계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보도사진 작가 그룹 매그넘의 대표 작가 데이비드 알란 하비는 2014년 우도, 성산, 김녕, 하도 등 제주 곳곳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을 찾아가 강인하고 소박하며 친밀한 해녀들의 다양한 감성적 표정을 사진에 담아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세계인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사례처럼 제주해녀는 세계인들에게 범세계적으로 영감을 주는 놀랄만한 사건이자 문화적 영감을 주는 콘텐츠인데도, 정작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인들에 의한 문화콘텐츠나 가치부여가 약했고, 제주도의 비중 있는 문화정책으로 극대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 201654

50)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은 2004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주해녀와 해녀문화가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면 20년 후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경고를 하였다.

일본 아마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은 커지지만 오히려 유네스코 등재를 눈앞에 둔 제주해녀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일본은 제주해녀의 혼과 바다에 대한 사랑, 삶의 역사와 생애 전체를 부러워하며 일본 아마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와 제주해녀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확장이라는 것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이라는 거창한 보고서와 많은 예산의 일이 아니다. 해녀 당사자와 해녀들의 아들, 딸인 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이주자와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키워드와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선5기부터의 목표인 ‘해녀문화의 세계화’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해녀의 삶과 그 이야기들을 글로벌 문화브랜드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해녀라는 존재가 일본과 한국,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한다. 유네스코 등재신청은 한국이 제주해녀문화로 먼저 신청했지만 전 세계인들에게는 일본해녀 아마가 영어나 불어로 발음하기 쉬운 모음으로 되어있고 제주해녀는 한자어여서 ‘해녀’(Haenyeo)를 발음하기도 이미지화하기도 힘들다. 쿠바에서 제주해녀를 홍보했던 ‘사우스카니발’의 보컬 강경환씨도 의외로 일본해녀 아마는 잘 알고 있는데 제주해녀를 말하니 전혀 모르고 발음하기도 어려워해서 ‘sea woman’이라고 말해야 겨우 뜻을 이해했다고 홍보의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제주해녀의 존재와 그 가치를 다른 문화권으로 알리고 공감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등재를 우선순위로 노력한들 현재의 일본아마의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을 당해 내기가 어렵다. 제주해녀의 삶과 역사와 가치를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와 연대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해양산업의 여성 어업군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향후는 문화콘텐츠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투자 및 문화정책으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해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이 특유의 미학적 접근으로 문화예술가들과 연대하여 아름다운 해녀그림의 우표를 이미 만들었다. 또한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의 언론인 르몽드지 1면에 일본해녀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고, 아베(安倍) 총리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는 아마 서밋

의 행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면서 제주해녀들을 만나 제주해녀의 역사와 우수한 기량에 대한 칭취를 하는 자세는 제주도와 한국정부의 현실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모인 정상들의 배우자인 독일 메르켈 총리 남편 요아킴 자우어(Joachim Sauer) 교수, 캐나다 트뤼도 총리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 트뤼도(Sophie Gregoire-Trudeau), 유럽이사회 투스크 상임의장 부인 말고자타 투스크(Malgorzata tusk)등은 일본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미에현(三重縣) 토바시(鳥羽市)의 아마테마파크인 '미키모토 진주섬'을 방문하여 일본 해녀 85명들과 교류하고 해녀와 함께 진주를 잡는 작업을 체험하였다.

이처럼 아베(安倍) 총리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를 비롯하여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 세계에 일본 해녀 아가를 널리 알리고 일본의 문화이미지와 국가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군다나 올해 말이면 제주해녀는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네스코 등재는 안 되었지만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문화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더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된 일본 아가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다면, 유네스코 등재는 제도적 성취일 뿐, 거친 자연을 이겨내며 뜨거운 삶을 살아낸 위대한 제주어머니들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는 거쳐 가야 할 당연한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는 유네스코 등재를 넘어 제주사람에 대한 가치, 도민의 자존감과 국가브랜드로서 세계에 한국여성문화의 대표성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는 의미 있는 일이다. 유네스코 등재를 넘어 제주도와 한국을 넘어 세계로 제주해녀문화가 공감대를 확산하려면 세계인의 언어라고 하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주인만이 아닌 국내외의 문화예술가들이 제주해녀를 소재로 작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DB자료구축과 제주해녀아카이브 작업에도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 고희영 (2015), 『물숨 : 해녀의 삶과 숨』, 서울: 나남.
- 구소은 (2013), 『검은모래』, 서울: 은행나무.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원미사.
- 박재형 (2006), 『이어도로 간 해녀』, 서울: 베들북.
- 브렌다 백선우 (2011), 『Moon Tides-Jeju Island Grannies of the Sea』, 서울셀렉션.
- 서명숙 (2015), 『숨, 나와 마주 서는 순간』, 서울: 북하우스.
- 선자은 (2008), 『꼬마해녀와 물할망』, 서울: 사파리.
- 신동일 (2011),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증대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성은 (2007), 『숨비소리』, 서울: 눈빛.
- 이성훈 (2005), 『해녀의 삶과 그 노래』, 서울: 민속원.
- 이성훈 (2010), 『해녀 노젓는 소리 연구』, 서울: 서울학교방.
- 이성훈 (2014), 『해녀연구총서 1』, 서울: 서울학교방.
- 이성훈 (2014), 『해녀연구총서 2』, 서울: 서울학교방
- 이성훈 (2014), 『해녀연구총서 3』, 서울: 서울학교방
- 이성훈 (2014), 『해녀연구총서 4』, 서울: 서울학교방
- 제주여성작가회의 자청비 (2014), 『잠수 잠녀 제주해녀 그리고 우리』, 제주: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보고서 - 숨비질 배왕 늪주지 아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8),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 좌혜경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 서울: 민속원.
- 준초이 (2014), 『해녀와 나-바다가 된 어멍, 그들과 함께한 1년의 삶』, 통영: 남해의 봄날.
- Dulmen, R. V. (1997), Die entseckung des individuums, 최윤영 번역 (2005),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허영선 (2015), 『애기해녀 옥랑이 미역 따러 독도 가요』, 서울: 파란자전거.
- 현기영 (2015), 『제주 해녀 간난이』, 서울: 현복스.
- 현기영 (2015), 『해녀와 테우리』, 서울: 현복스
- 데이비드 앨런 하비, 현길언 (2015), 『제주 해녀(Jeju haenyeo)』, 서울: 태학사.

《논문》

- 강이화 (2015), 「독일 생애사 연구의 인식론적 기반과 분화 과정」,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0호 제2권, 1-20.
- 권갑하 (2015), 「아리랑의 글로컬 문화콘텐츠화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권상철·정광중 (2004), 「일본 아마의 잠수실태와 특성 :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아마마치 및 헤구라지마의 사례를 통하여」, 제주도연구, 25집, 121-171.
- 김영·양정자 (2004), 「잠수의 역사와 출가 물질의 요인」, 초등교육연구, 제8집, 21-36.
- 김경희 (2007), 「제주지역 여성 이미지의 탐독」,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동윤 (2002),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제주도연구, 22집, 167-205.
- 김동현 (2015), 「1964년 작 영화 <해녀> 연구」, 영주어문, 제29집, 241-270.
- 김미경 (2015), 「제주 해녀들의 삶과 생활을 활용한 공연 스토리텔링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1집, 89-122.
- 김보성 (2014), 「해양문학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개발방안」, 한국도서연구, 제26권 제1호, 25-48.
- 김선기 (2010), 「제주 ‘해녀’와 일본 ‘아마’의 호칭 형성과정 비교」, 외국어 연구,

제24권, 173-202.

- 김세은 (2012), 「해직 언론인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연구: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3), 292-319.
- 김영돈 (1986), 제주해녀의 민속학적 연구, 제주도연구, 제3집, 163-202.
- 김영돈 (1991), 「제주해녀 조사연구 : 특히 민속학적측면에서」, 민족문화연구, 27-92.
- 김영돈·김범국·서경림 (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145-268.
- 김영순 (2013),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김영천·한광웅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제18-3호, 5-43.
- 류인평·조영호·심우석 (2014), 「관광스토리텔링과 관광목적지 매력, 브랜드 가치 연구 :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9권 제2호, 183-203.
- 문순덕 (2009), 「제주여성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32집, 87-112.
- 박경일 (2015),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박찬식 (2007),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30호, 39-68.
- 안미정 (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제15집, 153-193.
- 안미정 (2006), 「바다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잡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39-2, 307-347.
- 안미정 (2007),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안영숙·장시광 (2015), 「문화현상에서 스토리텔링 개념 정의와 기능」, 온지논총, 제42집, 329-360.
- 양숙연 (1993), 「제주 해녀의 삶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순자 (1997), 「해녀노래 사설에 드러난 해녀의 경제활동과 해녀노래 전승방

- 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유철인 (1990),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 제주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모색」, 제주도연구, 105-117.
- 유철인 (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 제주 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 97-117.
- 유철인 (2011),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4-2, 113-138.
- 유철인 (2012), 「일본 아마와 관광 : 전통적 잠수복인 이소기의 상징성」, 일본학, 제34권, 183-211.
- 윤용택 (2015),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생활문화 의식」, 제주도연구, 제43집, 179-211.
- 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동향의 방법론적 검토 : 세 가지 방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6(2), 47-82.
- 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 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71-96.
- 이동성·김영천 (2007),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에서의 일곱 가지 글쓰기 전략」, 초등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77-103.
- 이슬비 (2015), 「‘어머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작품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정주 (2000),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제주도 연구, 제17집, 51-93.
- 이창식 (2012),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와 스토리텔링」, 비교한국학, 제20권 제2호, 233-277.
- 이창훈 (2011),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영주어문, 제22집, 193-230.
- 이학주 (2015),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 춘천시 구곡폭포 스토리텔링 사례를 통해서」, 인문과학, 제57집, 209-237.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장노현 (2010),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분절과 결합 구조」, 대중서사연구, 제

23호, 217-243.

- 조성윤 (2013),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42호, 75-99.
- 조한혜정 (2011), 「해녀문화 세계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11-16.
- 좌혜경·권미선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집, 229-259.
- 최영신 (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2.
- 한강희 (2014), 「문화유산 콘텐츠 향상 기제로서 스토리텔링의 도입과 적용 : 국내 스토리텔링 공모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집, 543-573.
-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8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0.
- 한창훈(1999), 「제주도 민요와 여성 : 특히 잠수의 생활과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81-98.
- 허남춘 (2014),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탐라문화, 44권, 49-82.

2. 국외 문헌

- Miller, R. L. (2000), *Researching life stories and family histor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allard, J. (1935), *Criteria for the life history: With analyses of six notable docume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le, A. L., & Knowles, L. g. (2001), *Lives in context: The art of life history research*, NY: AltaNira Press.
- Ojermark, A. (2007), *Presenting life histories: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CPRC working paper 101.
- Roberts, B. (2002), *Biographical research*,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Los Angeles, CA: Sage.

Watson, L. C., & Watson-Franke, M. B. (1985), Interpreting life history: An anthropological enquiry, NJ: Rutgers University Press.

Wicks, A. & Whiteford, G. (2006), Conceptual and prac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rch: Reflections on a life history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3(2), 94-100.

Adriansen, H. K. (2012), Timeline interviews: A tool for conducting life history research, Qualitative studies, 3(1), 40-55.

3. 웹사이트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뉴욕타임스, <http://www.nytimes.com/>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법환즙너마을해녀학교, <http://www.thehaenyeo.com/>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http://www.ichcap.org/>

전문직여성한국연맹, <http://www.bpw.or.kr/>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제민일보, <http://www.jemin.com/>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

제주신문, <http://www.jejuexpress.co.kr/>

제주신보, <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http://inside.chosun.com/>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한수풀 해녀학교, <http://cafe.naver.com/jejuhaenyeoschooll>
해녀박물관, <http://www.haenyeo.go.kr/>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
PROOF, <http://proof.nationalgeographic.com/>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
毎日新聞, <http://mainichi.jp/>
相差海女文化資料館, <http://www.oosatsu.net/midokoro/ama/>
海の博物館, <http://www.umihaku.com/>